MAY 1 1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1130 1983년 5월11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Wednesday, May 11,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중공, 9개항각서 조인

납치여객기 승무원과 탑승객 본국으로 향발

(서울 10일=연합)중공과 한국은 10일 피납된 중공기와 그 승무원·승객들을 중공에 귀환시키고 6명의 납치범들을 한국에서 재판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담긴 9개 조항의 각서에 조인했다.

중공과 한국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쌍무문서인 이 각서는 공노명 외무차관과, 샌투 중공민간항공청 사무국장이 각각 서명했다.

각서가 조인됨에 따라 승무원과 탑승객들은 10일 하오6시반 중공협상대표단 과 함께 중공으로 향발한다.

한국은 애초에 이 각서가 중공및 한국정부 대표의 이름으로 조인될 것을 요구했었으나, 중공측은 동 각서에 양국의 공식명칭을 표기하는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83년5월5일 춘천부근에 105명의 승무원·승객과 함께 비상착륙한 중공항공기는 6명의 납치범들에 피납된 것으로,

9명의 승무원중 2명은 납치범들에 의해 총상을 입었다.

2. 한국당국은 승무원·승객을 납치범으로 부터 구해냄으로서 이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3. 부상한 2명의 승무원들은 외과수술등 신속·적절한 의료를 받아 현재 서울의 병원에서 회복중이다.

4. 샌·투씨가 인솔하는 중공 대표단은 한국당국과의 협상을 위해 5월7일 서울에 도착했다.

5. 샌·투씨와 그 일행은 입원중인 2명의 승무원을 방문했으며, 서울의 각 호텔에 묵고있는 승무원·승객들도 방문했다.

6. 해당국제규약에 준한 양측 협상을 통해 항공기·승객·승무원들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본국으로 돌아간다.

7. 아직도 중태에 있는 1명의 승무원은 서울의 병원에 남아 여행을 할 수 있을만큼 회복되는대로 귀국한다.

8. 샌·투씨는 승객·승무원의 안전과 부상자 치료에 한국측이 신속·적절한 조치를 취한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9. 양측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서 드러난 협력정신을 앞으로의 비상사태에서도 지킬 것을 희망한다.

기체 김포공항으로

춘천부근에 불시착한 피납 중공기를 이륙시켜 김포공항으로 옮기려던 계획이 11일 아침으로 연기됐다.

비행기를 조사중인 한국인 23명과 중공인 10명의 정비단은 기체의 무게를 10톤쯤 줄이기 위해 승객석및 일부시설을 떼냈으나 5톤정도밖에 줄이지못해 안전상 이륙을 11일 아침으로 미루었다.

기계류박람회 한국관개관

8개업체참석에 전시장규모 가장 커

83년도 캐나다 기계류박람회('83 National Industrial Production & Machine Tool Show) 한국관 개관식이 9일 10시30분 전시장인 CNE콜리시움에서 열렸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타와대사관의 신동오상무관, 토론토한국무역관 이준식관장, 박영철토론토부총영사, 최승낙외환은행장, 차선겸실업인협회장, 이영현무역인협회장등 많은 인사가 참석했다.

개관식이 끝난후 신상무관은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관규모가 제일크고, 캐나다바이어의 눈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북미 기계류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기아기공, 대한중기공업, 광중남선선반, 통일산업, 한국공작기계, 동성개발공업, 기흥기계제작소, 세예실업등 8개 업체가 참석, 300여평방미터의 전시장에 공작기계류, 산업기계류, 용접기구등 245개품목을 전시하고 있다.

이관장은 과거에는 세일즈맨들이 전시장에 파견되어도 기계설명에 미흡한 점이 많았으나, 이번에는 공대출신인 세일즈엔지니어들이 파견되어 성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관장은 이어 참가업체선발기준은 (1)품질, (2)세일즈능력, (3)수출실적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하고, 이번 전시에서 성과가 좋으면 토론토에 한국기계센타를 설립할것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500만달러의 판매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이관장은 전망하고 있다.

캐나다기계류박람회에 한국이 참가하기는 81년이래 2번째이다.

◆9일아침 CNE에서 열린 한국기계류박람회 광경. 왼쪽부터 신동오 상무관, 이준식 무역관장 등에 이철진 광주남선 영업과장이 동회사 제품 선반기계를 설명하고 있다.

은하 보석
관동화장품 대리점
ROLEX
교포용일환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자중품 현외소지업
45 % ~ 50 % OFF
오메가시계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4/6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8.4%		6.75%
90일	8.4%		6.75%
180일	8.5%	8.25%	7.25%
365일	8.75%	8.25%	7.7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모국연예인쇼」 박두

향수의 멜로디와 웃음보따리 선사

(2면에 계속)

본국의 최정상급 연예인 10명으로 구성된 「모국연예인초청쇼」가 오는 13일(금) 저녁7시부터 토론토대학교 콘보케이숀·홀(Convocation Hall)에서 교민들의 기대와 열광속에 마침내 막을 올린다.

본토론토·한국일보사와 한인민족상위원회가 한인민족상 기금모금을 위해 주최하는 이번 대공연에는 한국 연예가에서 정상의 위치를 차지하는 연예인들이 참가한다.

초청연예인은 「아직도 그대는 내사랑」으로 만인의 가슴을 적셔준 대형가수 이은하양, 메들리의 여왕으로 군림하는 김연자양, 「잊혀진 계절」을 불러 한국레코드판매사상 최고기록을 올린 인기가수 이용군, 「못생겨서 죄송합니다」의 주인공인 초대형 코메디언 이주일씨등이다.

특히 이번공연에는 국내 정상급 그룹사운드 「호랑나비」가 함께 오기때문에 가수와 밴드와의 호흡이 어느공연때보다 잘 맞아 교민들이 고국의 흥취를 마음껏 즐길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대중문화의 선봉을 달리는 이들이 이처럼 한 무대에 서는 것은 이들의 인기가 모두 절정에 서있고, 각자 바쁜 일정에 쫓기고 있는만큼 본국무대에서는 좀처럼 드문일이다. 이번 토론토공연은 북미의 교포팬들과 본사의 간곡한 청을 이들 정상급 연예인들이 받아들이고 각자의 공연일정을 취소하는 성의를 보임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난해 미주지역 교포들에게 선풍적인 「모국공연붐」을 일으킨바 있는 코메디 이주일은, 이번 토론토공연에서 뮤지컬 코메디를 가지고 교포팬들에게 끝없는 웃음과 폭소를 선물한다.

이번 뮤지컬코메디는 모두 3막으로 구성된 본격적 코메디극화물로서 제1막은 「탈선춘향전」, 제2탄인 「사또와 이방」, 제2막은 「바보아이들과 구두쇠영감」, 제3막은 「최신 디스코발표」등이다.

▲ 이주일

▲ 이 용

▲ 이은하

▲ 김연자

코메디 왕자	이주일
「잊혀진 계절」	이 용
「아직도 그대는…」	이은하
메들리여왕	김연자
그룹사운드	호랑나비

이들 일행은 11일(수) 오전11시43분 토론토 공항에 도착하여 13일밤 토론토공연을 마치고 다음날 오전9시15분 뉴욕으로 떠난다. 이들은 영과 찰스·스트릿에 위치한 안도어(Anndore Hotel)에 머물면서 공연장인 콘보케이션·홀을 답사한 후, 나이아가라폭포등도 관광할 예정이다.

토론토에 오기전 이들 수퍼스타들은 한국일보 워싱톤지사 주최로 8일 저녁 몽고메리 이스트고등학교에서 북미 첫 공연을 가졌다.

워싱톤지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강당 1,200여좌석을 메운 가운데 8시부터 2시간동안 계속된 이날 공연은 과거 어느 모국공연단보다 교민팬들을 열광시켰다.

토론토한인사회에서 모국연예연 대형쇼가 있기는 81년이래 처음있는 일이며, 특히 공연장소인 콘보케이션홀은 학위수여하는 유서깊은 곳이다.

돔식으로 되어 있어 마이크가 필요없을정도로 잘 울리며, 좌석이 1,700석인 콘보케이션홀을 토론토대학이 한인사회에 대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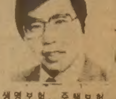
15달러인 A석은 6일 현재 이미 매진되었으며, B석(12달러)과 C석(10달러)은 현재 각 한국식품과 한국관, 동궁, 아리랑하우스, 남강등에서 판매중에 있다.

교포A씨는 7일 「가정주간」을 맞아 노부모를 위해 지난주에 A석을 5장 구입, 고향의 냄새가 물씬나는 모국연예인쇼를 선물하기로 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수 있는 모국연예인 초청쇼 공연장의 파킹장은 대학구내외에 여러곳이 있으며, 공연시간전에 도착하여 파킹장을 미리찾아야 유리할 것이라고 주최측은 말했다.

칼리지전차를 이용하는 입장객은 세인트·조지(St.George)에서 내려야 한다.

지난 6일 KAL기편으로 한국을 떠난 이들 연예인단은, 토론토외에 미국11개 도시를 40여일간 순회 공연한후, 6월중순경 귀국할 예정이다. 이주일은 특히 로스엔젤레스에서 한국 코메디언 쟈니·윤과 함께 쟈니·카슨쇼에 출연할 계획이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현영일
카나다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ng I. Hyun C.A.

강화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622-5147

금년 하기휴가때 고국 방문을 계획하십니까?

★부모, 형제, 친지들께 선물용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한곳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있게 교민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준비하였읍니다.

⊙미도파에서는 고국방문시 쇼핑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특별할인판매

테이스터·쵸이스커피
SPE. 5.49
REG. 7.49

폴라벨 프랑스산
SPE. 29.00
REG. 59.00

이태리산 씰크브라우스 원피스등
고급화장품
향수
선그라스
면도기
헤어 드라이어
핸드백, 여행가방
브라우스, 원피스
(이태리산 실크)
※한약종류와 각종비타민등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P

미시사가 프로축구에 입단

고 송중구씨의 3남 명호군

에토비콕에 거주하는 교포청년이 미시사가프로축구팀에 스카웃되어 입단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최근 세상을 떠난 송중구씨의 3남인 송명호(21세·Robert)군.

뱅쿠버 사이먼프레이져(Simon Fraser)대학에서 축구장학생으로 경제학과를 3년 수료한 송선수는, 어릴때부터 축구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15세때 이미 본국체전에 출전한 캐나다동포축구팀 선수로 출전했다.

송군은 16세이하 캐네디안축구선수권대회, 전국대학축구 올스타, 북서태평양지역 올스타, 뉴욕시 고등학교축구대표팀등에서 활약했으며, 근래는 캐나다 올림픽축구팀에서도 2년간 소속되었다.

한인학생이 체육장학생으로 대학재학중인 경우는 매우 드문일이다.

미시사가팀에 소속하기전에는 회탑인프로축구팀에서 1년간 활약했다.

◆송명호씨

현재 1년 계약에 1년 옵션으로 입단한 송선수는, 앞으로 한국축구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코리언·저널 유사장

탁구협회이사장 피선

탁구협회(회장 차선행)는 5일 한국관에서 모임을 갖고 공석중인 부회장단에 장용대씨, 김동천씨, 이사장에 유영린씨를 선임했다.

또한 집행위 총무에 이성기씨, 섭외재무담당에 황병준씨를 임명하고 신임이사 9명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탁구인구 확대를 위한 각종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도미니언·스토어가 줄어든다

최근 토론토에 4곳 문닫아

온타리오내에 강력한 연쇄스토아망을 가지고 있는 도미니언 스토아(Dominion Store)회사는 최근 토론토시내 수개소의 직영도미니언스토어를 폐쇄했다.

회사당국은 더퍼린(Dufferin at Lawrence)에 위치한 스토아를 포함, 4곳의 도미니언과 2개의 방계점포가 지난 3월이후 문닫았다고 공식발표했다.

현재 새 사장을 맞은 이 회사는 이윤의 폭이 적거나 경영이 부실한 점포에 대해서는 폐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몇군데가 문을 닫을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서부주의 몇점포도 이미 문을 닫았다.

이같은 대규모 그로서리의 폐쇄는 수년내에 처음 있는 일이며 과거 동업 로블로즈(Loblaws)회사가 일부스토어의 문을 닫은 경우가 있다.

비지니스 소식란

영숙보석상 확장

영숙보석상(민영숙):개업1주년을 맞아 이튼센타 건너편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에 점포를 하나더 늘렸다. 앞으로 토론토에서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교민들에게 최대의 봉사를 하겠다고, 민씨는 그동안 한인사회에 보석상으로서는 누구보다 기부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숙씨

〈배학순 신임 학자회장과 인터뷰〉

"교민문제연구소 설치원해"

"적응, 동화같은 말은 다 식민지적 개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민자가 이곳 사회에서 이룩해야 할 것은 동등한 참여자(Egual Partner)가 되는 융화(Accommodation)입니다"

지난8일 몬트리얼의 캐나다한인학자회 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된 알버타대 배학순(48)교수의 말이다.

"백인들이 이곳 사회에서 정치적 힘을 장악하고 있다해서 그들을 반드시 주류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동등한 참여에의 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으로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사대를 거쳐 55년도미, 코넬·칼리지와 아이오아대에서 수학한 뒤, 67년 알버타대학에서 웨스트·인디즈(West Indies)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인류학 (Politieal Anthropology)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계속 알버타대학에서 인종과 인종주의, 기술과 문화, 한국문화, 정치인류학, 근로와 생산, 인류학과 세계문제등을 가르치고 있다.

총회에서 학자회의 역할에 관해 논란이 많았지만, 앞으로 학자회는 지방조직과 분파위조직을 강화함과 동시 기능을 분리하기 보다는 통합해야 할 것이며, 산하에 한인코뮤니티문제연구소같은 것을 설치하고 싶다고 밝혔다.

에드몬톤 한국 코뮤니티에서는 한인회 장기사업대표위원, 한인회 이사, 한글학교 이사, 한인회관 준비위원등을 맡고 있다.

배박사는 알버타주정부가 임명한 복합문화성 자문위원을 4년째 맡고 있으며, 에드몬톤시교육위의 이민봉사협회회장등 수개의 공직에다 학자회회장까지 맡게됐다.

78년 중공에서 만난 러시안 유태계의 현 부인은 연방국방상을 지낸 바니·댄슨(Barney Danson)씨의 조카로 캐나다최초의 여성노조협상가.

◆배학순박사

60년 미국에서 결혼한 첫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난 21세, 19세의 두아들과, 19개월난 아들등 3남을 두었고, 아들들과 "찐가 함께 하고 싶어" 6·7년전부터 169에이커의 꿀벌농장을 취미로 경영하고 있으며, 골프·스키등 스포츠도 즐긴다.

(몬트리얼=조미래부장)

토론토 돔스타디움 건설추진

북미에서 8번째 개장

작년 12월이후 열띤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CNE내의 돔스타디움 건설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민감하여 현재 47%가 강력한 건설 찬성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38%는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토론토스타지가 실시한 한 여론조사는 찬성자들은 대부분 가능하면 빨리 공사에 착수하여 많은 스포츠경기 뿐만 아니라 대형음악회, 쇼, 종교행사, 로데오(Rodeos), 서커스등도 열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각종 경기선수들 자신도 실내경기장을 원하고 있다.

선수들은 비를 피할 수 있으며 야간경기장에 날뛰는 들쥐, 날짐승을 피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지원그룹은 부수적으로 경기장내 우체국, 은행, 외환거래소, 이발소, 꽃집, 방송국 시설등도 설치하자는 다양한 의견도 제안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약 6만석의 좌석이 구비될 돔스타디움은 1억4천만 달러를 투입, 86년경에 개장된다.

이 경기장이 완공되면 북미에서는 8번째의 돔스타디움이 된다.

현재 북미에 있는 7개의 돔스타디움은 다음과 같다.

1. 아스트로돔(Astrodom): 휴스턴 텍사스 소재. 1965년 개장.

2. 실버돔(Silverdom): 폰티악 미시간 소재. 1975년 개장, 최대의 수용인원 80,638명

3. 수퍼돔(Superdome): 뉴올린스 루이지아나 소재, 1976년 개장.

4. 케리어돔(Carrierdome): 시라큐스 뉴욕 소재, 1978년 개장.

5. 더킹돔(The Kingdome): 시아틀 소재.

6. 험프리메트로돔(Humphrey Metrodome): 미니아폴리스소재, 1982년 개장.

7. 비·씨플레이스(B.C Place): 밴쿠버소재, 1983년 개장

8. CNE (?)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菊島의 사나이

노파의 증언

<230>

김형사는 저녁때가 돼서야 입을 열었다。충격에서 겨우 벗어난듯 띄엄띄엄 입을 열었다。

『빨간 사람이었어。빨간 털모자에 빨간 파커를 입고 있었어。등에는 배낭을 지고 걸음걸이가 아주 빨랐어。머리가 센걸 봐서는 50대쯤으로 보였지。턱에도 온통 털이 나있었어。얼굴은 검은빛이었고 눈빛은 더없이 따뜻해 보였어。겨울철에 등산이나 하는 그 사람이 부러워 보였지。양지마을에 사느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그랬어。등산갔다 오는줄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가 이야기를끝낼때까지 마인은 숨소리도 내지않고 듣고 있었다。

김형사는 도중에 몇번이고 멈췄다가 가까스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곤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 주의해서 듣지않으면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그것을 듣고있는 마형사는 속으로 몹시 놀라고있었다。

마침내 김형사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마인은 자신이 식은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놈은 나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그런데 죽이지 않고 나를 병원에 입원시켜 주었어。알다가도 모를 일이야。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운이 좋았읍니다。』

『놈은 어떻게나 빠르던지 나에게 기회를 주지않았어。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채 놈한테 당했어。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해도 나는 도저히 그놈상대할수 없었을거야。그만큼 놈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있었어。일찌기 나는 그렇게 무서운 힘을가진 놈을 겪어보지 못했어。정말 무시무시한 놈이었어。한대 맞았을 때 온몸이 부서져나가는 것 같았어。놈의 주먹은 쇠망치 같기도 하고 칼날같기도 했어。

"놈은 X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朴 男 그림

한 마디로 맹수같은 놈이었어。그놈이 왜 나를입원시켰을까?』

『배낭 속에 든 물건을 보자는 말만 안 했어도 괜찮을텐데…』

『맞아, 바로 그거야。문제는 거기에 있었어。』

김형사는 한숨을 길게내쉬었다。

『놈은 거물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도주하면서도 입원까지 시킨걸 보면 매우 침착하고 여유가 있는 놈임에 틀림없읍니다。거기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글쎄…딱딱하지 않고 물렁물렁했으니까…』

『혹시 밀가루같지않았읍니까?』

『그래, 맞아。감촉이 밀가루 같았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맞춰보니까 놈은 X와 비슷한데가 있읍니다。』

『뭐라고?』

김형사는 상체를 일으키려다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 드러누워버렸다。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누워계십시요。』

『다、다시 말해봐。뭐가 X와비슷하다는 거야?』

『우선 키가 비슷합니다。그리고 얼굴은 변장을 했겠지만 골격도 비슷합니다。목소리도비슷합니다。아직 뭐라고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구보및 걷기대회

22일 하이파크에서

토론토시는 「전국체육활동주간」의 일환으로 전시민 구보(Run)및 걷기(Walk) 행사를 오는 22일(일) 하이·파크(High Park)에서 갖는다.

공원및 레크레이션부 주관으로 2회째 열리는 이날 「Fun-Run-Walk」행사는 오전10시15분에 5km및 10km 코스를 출발한다.

참가희망자는 오전 9시30분부터 등록을 해야하고 등록자에게는 행사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며 완주자에게는 증명서를 교부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등록신청서는 각 지역 레크레이션·센타에서 얻을 수 있다.

행사후에는 공원에서 가정별·단체별·기관별 피크닉과 각종 체육행사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주최측은 이날 공원주변의 퍼블릭 주차장이 폐쇄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은 하이·파크역(High Park Station)이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Beaches Recreation Centre
6 Williamson Road, 698-5084

◉Hillcrest Community Centre
1339 Bathurst St, 532-9932

◉Keele Community Centre
181 Glenlake Avenue 766-2821

◉Pape Recreation Centre
953 Gerrard St, East 461-3531

◉Trinity Recreation Centre
155 Crawford Street 537-2519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 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1면에서 계속〉

프로필

*이주일

이주일은 나이트클럽 밤무대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1년간 독점출연 3억5천만원을 제의받는등 극장식당, 나이트클럽의 밤무대에서 이주일을 쟁탈전이 치열하다. 장사가 안돼 문을 닫았다가 신장개업하는 곳도 이주일출연으로 극장식당의 명소로 변하는등 야간업소에서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이런 인기때문에 81년도 종합소득세 1천6백만원으로 연예인중 1위, 82년도에는 1천5백60만원으로 2위였으며, 83년에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일의 밤무대 출연료 한달계약는 1,500만원정도.

하루 200만원씩 받는 지방공연도 특별한 친분관계를 빼고는 모두 사절하고 있다. 코메디의 왕자 이주일은 밤무대와 TV뿐만 아니라 라디오 청취율까지 점령하고 있다.

81년6월부터 진행을 맡기 시작한 MBC라디오의 「세월따라 노래따라」는 전 라디오프로중 청취율 1위를 마크하고 있다.

80년 1월 TV에 데뷔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올해 43세의 이주일은 그전까지만해도 지방쇼를 따라다니는 유랑생활을 했었다. TV출연 2년만에 그는 영화에까지 출연하고 있다.

◇보컬그룹 「호랑나비」

*김연자

흘러간 옛 가요를 접속곡으로 불러 2백만장이상의 히트 기록을 세운 메들리의여왕 김연자는 가수생활 6년의 경력. 76년 광주 수피아여고시절 「오아시스」레코드사에 픽업된이후 빛을 못보고 있다가 일본에서 2년간 가수생활을 하다가 귀국해 80년말 내놓은 메들리곡집 「노래의 꽃다발」과 「노래의 관광열차」, 그리고 최근의 「노래의 올림픽」등이 2백만장이상의 기록적인 힛트를 치면서 가요계를 거센 김연자바람으로 뒤덮었다.

김연자메들리카세트는 국내의 힛트뿐만 아니가 일본·북미등 해외동포는 물론 중동등 한국 근로자가 나가있는 세계의 여러곳에서도 퍼져있을만큼 유행이다. 김연자는 최근 자신의 힛트신곡「진정인가요?」를 내놓았다.

*이은하

73년 「임맞춤」으로 가수데뷔한 이은하는 77년부터 82년까지 계속 MBC 10대가수상을 수상했으며, 79년도에는 KBS의 최고인기상을 수상한 국내정상의 가수이다.

금년25세인 이은하는 「아직도 그대는 내사랑」, 「아리송해」, 「밤차」, 「봄비」등 150여곡의 힛송으로 펜들에게 친숙한 육감적인 그래머 싱거이다.

*이용

82년 MBC가수왕상에서 최고가수상을 수상한 이용은 힛트곡 「잊혀진 계절」과, 「바람이려오」의 연타로 단숨에 정상을 차지했다. 「잊혀진 계절」은 한국레코드판매사상 최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금년봄 서울예술전문대학을 졸업한 이용은 오는 6월1일로 연예계 데뷔 2주년을 맞는다.

화초·꽃 도매

✲주문배달 접수중✲

— 친절봉사

— 저렴한 가격

☎ 465-8167

Mr. 곽 Mr.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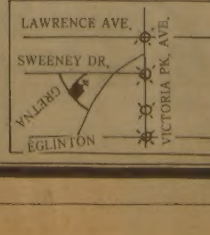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은혜의 시간

◆일자 : 1983. 5, 12(목)~15(일) 오후 7 시30분

◆장소 : 빌라델비아장로교회 (7 Gretna Ave.)

◆강사 : 윤 철 주 목사 TH. M., D.D.
□대구 서현교회
□군산 개복동교회
□서울 남교회
□L. A. 헤브론 장로교회



주최·빌라델비아장로교회

교역자청빙

본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역자를 청빙코자 합니다.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1매 (영문및 한글)
사진1매(반명함판)

● 기 일 : 1983년5월20일까지

● 보내실곳 : 18 Creighton Dr.
Dundas, Ont.
L9H 3P7
최태호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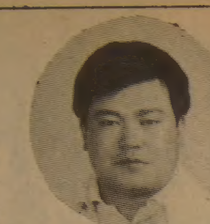
해밀톤 한인연합교회

교역자 청빙위원회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유인형수필선〉

호박검열 下


◆유인형씨

차량뿐 아니라, 정예 분대도 차출되어 나갔는데, 이 날쌘 부하들은 직속상관인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보았다. 영창에라도 집어넣으려면 쏙쏙하고 더 좋은 요지으로 전속해 가거나 카추샤로 차출되는 실정이었다.

「야, 오늘은 몇마리 낳았어?」

겨우 체면유지를 시켜주는 건 양토장이었다. 기분이 언짢으면 위병소 옆에다 만들어 놓은 양토장으로 내려갔다.

「열두마리 낳았시유-.」

위병조장은 언제나 싱글싱글 웃으면서 열두마리를 낳았다는 것이다.

「봤어?」

「부정타유. 보면 부정타유-.」

「그럼 어떻게 알어?」

「헐레 하는 걸 보았시유. 열두번씩 해유-.」

「젠장. 그 숫자대로 낳는구나. 나하고 좀 근무를 바꾸자. 네가 저 지프차를 타고. 내가 여기서 헐레하는 걸 관찰하자!」

처음엔 털깍는 토끼를 방사했는데, 까만 토끼가 몇마리 끼어들더니 온통 색깔이 호화스럽게 변해갔다.

「토끼를 길러본 경험이 있는 용사는?」

「저예유. 토끼라면 두마디 해선 못써유. 여섯살 때부터 길렀어유!」

그래서 토끼조장겸 위병조장으로 발탁된 친구인데 부대의 군기를 잡기는 커녕 제멋대로 되어갔던 것이다. 원래 위병소란 까다로운 곳이었으나 이 부대만은 싱글벙글 웃는게 위병소였다.

「풀 뜯어오는 분만 보세유!」

그래도 바보스런 위병조장은 솔직한 면이 있어서 좋았다. 저 새악시(CIC) 끄나불은 누구고, 백바가지(CID) 줄타는건 누구고, 메기입의 심복은 누구고, 또 누구는 누구 빽이고.- 자상하게 귀뜸해 주었다.

「너는?」

「지가 기면서유!」

사실 토끼조장과 돼지조장 이외는 믿을만한 부하들이 없었다.

「토끼는 어떻게 잡나?」

「낚시질 해유!」

「낚시로 토끼를 잡아내?」

번식력이 강해 수십마리가 수백마리로 늘어났지만 여기도 털빠진 어미가 몇마리 뿐이고, 온통 주먹만한 새끼들 뿐인 것이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뭘?」

「호박검열관이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호박같은 세상에 또 뭘 검열을 해?」

「농담할 시국이 아닙니다.」

「도착하기까지 몇분이 남았소?」

「사십분 정도입니다.」

「사십분 안에 호박이 주렁주렁 달려야 한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기동타격대를 출동시켜!」

「넷, 알았읍니다.」

C.P.X.가 걸렸다. 번개×하는 기동타격대 훈련이다. 간첩이 나타난 초비상 훈련이니까 현대복장으로 분초를 다투면서 접목표로 향하는 것이다. 병사들이 뒷산 공지로 쏜살같이 뛰어 올라간다.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는다고 한다. 이유가 없다. 이유를 달다간 고문관이 되는 것이다. 고문관이란 멍청하다는 뜻이다.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같다. 병사들 속엔 날치기, 들치기도 있고, 남한산성에서 수양을 하고 나온 베테랑들도 있다.

잠시후에 인사계가 쫓아와

「뒷산에 온통 호박밭입니다.」

「너무 많이 열린 게 아냐?」

「적당히 배치되어 누렇게 익어갑니다.」

「단장님 배처럼?」

과연 검열관 이하 보좌관이 들이닥쳤다.

「어서 오십시오.」

어느 사이에 챠트가 작성되어 있었고,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챠트속에는 호박의 칼로리와 조리법까지 들어가 있었다. 호박검열관이 고개를 끄떡거리는게 과연 호박검열관답게 무게가 있어 보였다.

「가봅시다.」

퉁명스럽게 내뱉자, 우린 뒷산으로 향하였다.

멀리서도 누런 호박이 잘도 익어가고 있었다.

「음, 놀랍군!」

「보통입니다.」

인사계가 옆에서 거들었다.

「줄기와 잎이 없어도 저절로 잘 크는 신종입니다.」

「과연 그렇군!」

「앞으로 저 넓은 야산에다 육용 소를 방목할 계획입니다. 젖을 짜서 매일 아침 수통으로 하나씩 급식도 하고요. 가끔 잡아먹기도 하고요!」

인사계가 또 추가로 설명하려 하자, 배를 쿡 찔러주었다. 농대를 졸업한 전문직 보좌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내려가시죠.」

그뿐이었다. 어처구니가 없으면 원래 할말이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위병소쯤 내려오자 십여명의 동네청년들이 삽과 작대기를 들고 고함을 질러대며 달려들 기세였다.

「저 호박도둑 잡아라!」

「저놈이 호박도둑 왕초야!」

호박검열관의 얼굴이 정말 호박색깔로 변해갔다. 숨어서 엿보던 병사들이 박수를 치는 통에 더욱 난처해져 버렸다.

군사혁명이 일어났다. 호박같은 단장은 체포되었다. 호박검열관은 혁명군의 기수였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모든 이치는 하나로 통하는 것이었다. 병사들이 의심하는 곳에 단결되는 부대가 있을수 없는 것이다. 한가지 허위보고가 그대로 넘어가면 백가지 명령이 그 추상같은 위신을 잃게된다. 군대가 명령이 서지 않으면 물고기가 물밖으로 나와있는 상태가 된다.

〈끝〉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연재소설〉

혼돈 ⑲

글·이태준 그림·최미정

제2편 착수

상승하고 있는 엘리베이터안에서 앞걸음과 뒷걸음을 반복하며 추는 그의 춤은 제전을 위해 추는 인디안의 춤같기도 하고, 차별과 멸시의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흑인들의 몸부림같기도 했다.

흑인은 춤을 추며 10층에서 내렸다. 마침내 11의 숫자에 불이켜지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김사장은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나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떠들지 말고 조용히 따라와라."

식당으로 가자던 김사장은 나의 손목을 움켜잡고 호텔의 1102호실로 끌고 들어갔다. 나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갑작스럽게 당하고 보니 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겁이 났다.

"옷을 벗어라."

벌겋게 달아오른 김사장의 얼굴은 포악스럽게 변해있었다.

나는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최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옷을 벗었다.

내가 옷을 다 벗기도 전에 김사장은 뜨거운 숨을 토해내며 덤벼들었다. 입술에서 목으로 가슴으로 굶주린 맹수와 같이 핥아 내리던 그는 나를 방바닥에 밀어 뉘이고 육중한 그의 몸을 덮쳤다.

〈엘리베이터안에서 흑인이 추던 춤은 김사장님, 당신을 위한 춤이였읍니다. 내 육체를 제물로 당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제전을 위한 의식의 춤이였읍니다.〉

몽롱해가는 의식속에서 나는 흑인의 춤을 생각했다.

◆

새어머니가 준 돈을 포카판에서 모두 날린 영수는 우울한 기분으로 차를 몰아 타번으로 향했다. 아직 이른시간이였지만 북적거리는 타번에서 일이라도해야 직성이 풀릴것 같았다. 타번안으로 들어선 그는 은근히 애자가 나와 있기를 바랐으나 애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유리만이 나와서 손님들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애자씨는 아직 안나왔어요?"

"네- 기다리다 저혼자 나왔어요."

"전화도 없었고요?"

"네."

아버지와 함께 나간 애자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영수는 마음이 더욱 불편했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겁도없이 위스키를 들이마셨다. 냉수를 마시듯이 꿀꺽꿀꺽 마셨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왔다. 허탈, 고독, 울분등의 감정이 얽키고 설켜 세상의 질서를 흔들어 버리고 싶은 충동이 불끈 불끈 솟아 올랐다. 정장을 하고 늠름하게 걷는 신사들의 모습이 역겹고, 희희덕거리며 좋아하는 연인들의 얼굴에 침을 뱉아주고 싶었다.

그는 갈곳도 없이 무척 빠르게 걷고 있었다. 부글거리는 감정을 발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걸었을뿐이므로 어디를 어떻게 왔는지도 몰랐다.

그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다운타운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으나 정확한 위치는 얼른 짚어낼수 없었다. 그는 큰길을 찾아내기위해 한 방향으로만 걸었다. 술이 깨면서 으스스 밤의 한기가 스며들었다.

덜덜 떨며 남쪽으로 한 블럭쯤 걸어나왔을때 한 아가씨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듣지 못했다.

"헤이"

하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영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한 아가씨가 이상한 걸음걸이로 쫓아오고 있었다.

"오늘밤을 나와 함께 즐기지 않으련?"

"뭐라고?"

"50달러만 내면 돼."

영수는 재수가 되게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되돌아서서 계속 남쪽방향으로 걸었다.

"어글리 차이니즈"

라고 부르짖는 아가씨의 목소리가 뒷전에서 들려왔다. 지저분한 동네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안 영수는 더욱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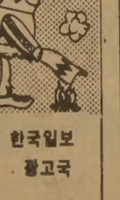
그가 세 블럭째의 길을 건널때 무심결에 건너편의 당구장이 눈에 비쳤다. 그는 계속 가려다 말고 몇걸음을 뒤로 물러나 다시 당구장안을 건너다 보았다. 분명히 그것은 여동생 미영이였다. 담배를 피워물고 남자들이 당구를 치는 것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은 집을 나간뒤로 소식을 알 수 없었던 미영이였다.

영수는 가슴이 뛰였다. 그가 길을 건너뛰어 당구장의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선 것은 극히 순간적인 일이였다. 그러나 영수의 행동에 비해 미영의 반응은 너무 태연하고 냉정했다.

〈계속〉

애자는 김사장의 제물이 되고

영수는 가출한 미영을 발견하는데…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고급레스토랑
남강에서 만납시다
점심스페샬 낮12시~1시
영업시간
월~금 아침8시~새벽1시
토~일 낮12시~새벽1시
파킹장 오후 8시 이후 무료

새봄이 살짜기 오고 있읍니다.
남강은 여러분의 지루했던 겨울의 권태로움에서 봄을 만끽하도록 새로운 음식으로 여러분을 모실 아담한 분위기와 최고의 써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고 있읍니다.
특히 스시-바에서 매일매일 채워지는 싱싱한 사시미, 스시와 따끈한 오뎅, 회덥밥, 모리소바, 냄비우동, 스끼야끼, 덴뿌라등과 애주가들을 위한 전복죽, 잣죽이 별미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족, 다정한 벗과 친지, 동창들의 모임을 아늑한 남강에서 만납시다.

피로연, 회갑, 동창회, 각종모임, 계
예약 환영
923-3060
920 Yonge St.
대표 이영규

종교계소식

인권관련 1백만명이 죽었다

20여개국서 합법가장 살해

(런던)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등지의 20여개국에서 지난20년간 무려 1백여만명이 군대나 정보기관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고 국제사면위원회가 2일 밝혔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사면위는 "지난20년간 아프카니스탄에서 오늘의 엘살바도르까지 세계 곳곳에서 「인권」이 짓밟히고 있으며,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비합법적인 살인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면위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5~79년 사이에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군에 30만명이 학살됐으며, 6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 내란당시에는 무려 50만명이 대량학살됐다.

각종행사마련

한인교회 가정의 달 맞아

한인교회(담임목사 반병섭)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행사를 마련하여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친교를 도모한다.

5월14일(토) 오후7시에 동교성가대 주최로 써니부룩 캠프화이어(Campfire)의 밤을 갖는다.

이날밤 싱얼롱(Sing-A-Long)과 캠프화이어를 통해 교제를 갖는다.

장소는 No.4 캠프화이어·플레이스.

*8일 가족음악경연대회

*23일 교내골프대회

*29일 여선교회 헌신예배

*30일~6월1일 캐나다연합교회 토론토대회

한편 연합교회 온타리오협의회 발기총회에 참석할 동교회의 대표로 박응국장로, 전동림장로와 여선교회회장을 선출했다.

간증집회취소

새한교회

새한교회(담임목사 김상호) 남신도회주관으로 5월15일(일) 예배후 실시예정이던 김대중씨 비데오간증집회는 동 신도회의 사정에 의해 취소되었다.

월간지「불광」배포

선련사

한국불교회 선련사(주지 김삼우)는 불교 월간 교양지 「불광」을 배포하고 있다.

서울 불광법회가 발간하는 이 책은 불교신앙 이해와 불교문화, 불교예술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구독문의는 전화 533-6911.

「부처님오신날」 행사마련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주지 석광옥)는 사월초파일(5월20일)을 맞아 봉축행사및 불광사 개원 6주년기념식을 갖는다.

*오전11시 불공

*정오 만발공양

*오후3시 향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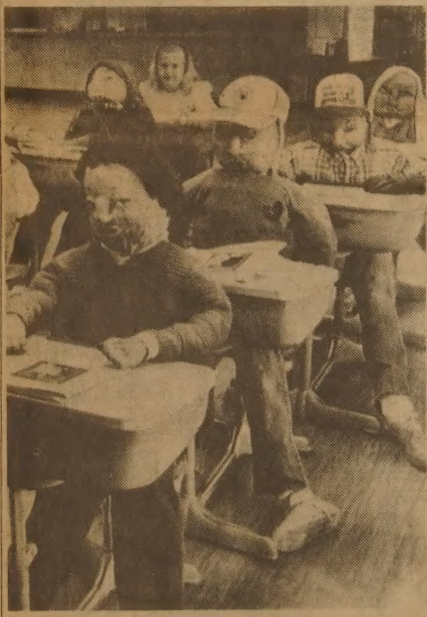
*오후4시 꽃공양

*오후7시 봉축행사, 초파일의식및 개원기념행사

*오후7시30분 관등식, 대중공양(저녁식사)

불광사의 주소는 288 Hounslow Ave. Willowdale, Ont.

전화 223-9152



▲허수아비 학급—퍼블릭스쿨주간 행사의 하나로 몬티리파스톨 4학년 우수반학생들이 스타킹과 종이로 만든 허수아비에 옷을 입혀 책상에 앉혀놓았다. (살리나스, 캘리포녀-AP)

「교황의 재난」 특별시리즈

토론토·선지…6회에 걸쳐 보도

토론토·선(Sun)지는 6회에 걸쳐 「교황의 재난(Perils of a Pontiff)」이라는 특별시리즈를 기획, 보도중이다.

8일부터 13일까지 계속될 예정인 이번 특집은 81년5월13일에 있었던 교황 요한·바오로 2세 암살음모전모와 역대 교황들의 재해에 대한 상세한 스토리를 파헤친다.

현재 263대째의 교황을 맞는 바티칸은 많은 비운을 겪었는데, 초대 18대까지 교황들은 대부분 회생과 독살, 단두형, 교살형, 질식사등의 재난으로 순교했다.

사회역사가인 고든·토마스와 맥스·몰간윗츠씨가 집필할 이 시리즈는 각종 숨겨있는 교황청의 애환을 보여준다.

◆요한·바오로2세

「성령강림절 기념성회」

토론토영락교회, 12~15일

토론토영락교회(담임목사 김재광)는 12일(목)부터 15일(일)까지 「성령강림절 기념성회」를 갖는다.

이번 성회의 강사는 LA영락교회에 시무하는 김계용목사이다.

김목사는 예수교장로회 전도부총무와 브라질선교사와 미주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했다.

집회의 시간은 매일밤 7시30분이다.

14일에는 오전7시 조찬기도회와, 오전11시 성경공부가 있으며, 15일 오전 6시30분에는 새벽기도회가 있다.

또한 17일(화)부터 3일동안 동교회에서 미주한인장로회 총회가 열린다.

이인주부제 신부로

캐나다 한인사제 제2호

캐나다에서 서품되는 두번째 한인신부가 오는 6월11일 탄생된다.

서울 가톨릭대학 재학중 79년8월24일 토론토의 성 아우구스틴신학대학으로 전학, 작년 6월초 「부제」로 서품된 이인주(레오나드) 신학생은 이날 상오10시 토론토대교구 주교좌 성당인 성 미카엘대성당에서 교구장 카터 추기경 주례로 사제(신부)로 서품된다.

이어 새 신부가 한인성당에서 드리는 첫 미사는 6월19일(일) 하오1시 쎄인·폴성당에서 거행된다.

캐나다에서 신품(신부서품)받은 제1호는 76년 9월25일 스카보로의 성 아우구스틴신학대학에서 서품받은 최규식(그레고리 오)신부(현 토론토한인천주교회 주임)이다.

현재 성 아우구스틴신학대학 재학중인 한인신학생은 고석준(아우구스틴)·문영석(시몬)·김명주(비오)의 3명이다.

◆곧 신부가될 이인주부제

비과세단체 혜택 못받아

교회건물 영리사용

(LA지사)교회가 영리행위를 하거나 교회건물이 영리단체에 의해 사용되면 교회도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이 나왔다.

캘리포녀주세무위원회(BOE)는 가든·그로브의 수정교회(목사 로버트·슐러)가 지난79년부터 좌석 하나에 1백50달러하는 음악회를 주최하고 영리단체에게 건물을 사용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영리행위를 했으므로 비과세단체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결정에 의해 수정교회는 과거 영리행위로 인한 40만달러의 세금과 앞으로 연간 25만달러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수정교회 변호인은 이에 불복, 법정투쟁까지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례친선 골프대회

토론토한인연합교회 주최…14일

토론토한인연합교회 골프클럽에서는 오는 5월14일(토) 오전11시45분 클레인버그(Kleinberg) 골프클럽에서 연례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시상은 우승트로피를 비롯한 Gross 1, 2, 3등, Net 1, 2, 3등, 여자우수상, Most Honest, Nearest to hole상 등이다.

참가비는 1인당 $35이며, 신청마감은 당일 현장이다. 문의전화 742-0260, 748-7722의 조춘상씨.

한편 7일 레크레이션위원회(위원장 박재선)가 주최한 교내친선탁구대회에는 25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남자단식 우승 표인근, 준우승 박성수씨, 여자단식우승 문영금, 준우승 이명순씨, 복식우승에는 박재선·조병준조가 각각 차지했다.

노인회원위로관광

토론토한인감리교회

토론토한인감리교회(담임목사 박준하)는 7일 청장년회 주관으로 부모님을 위한 경로행사를 가지고, 동교회 60세이상으로 구성된 소망회 회원을 위로하기 위한 나이아가라 관광회를 가졌다.

한편 가정의 달을 맞아 전 교우가족사진을 촬영하여 교회앨범을 제작한다.

가족찬송가 경연대회

29일 한인장로교회

한인장로교회(담임목사 박희민)청년부는 가정의달 기념 가족찬송가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5월29일(일) 예배후 열릴 이 대회는 개편찬송및 복음성가중에서 지정 1절과 4절을 부르게 되며, 자격은 무제한이다.

부부이상 전가족이 참석시에 점수가 높아진다고.

시상종목은 1, 2, 3등, 장려, 다수, 화목, 애교, 애석, 노력상과 참가상.

한영찬송가

성지사발간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한글과 영어로 편집한 한·영찬송가가 새로 발간되었다.

성지사 간행으로 발간된 이 찬송가는 현재 유년주일학교의 영어애창곡 100곡과 한국교회에서 애창되는 찬송에 영어원문을 붙인것 30곡, 그외의 것 130곡등 모두 260곡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들의 신앙심을 키워주기 위해 위인들의 신앙실화와 예화를 담은 「신앙실화·예화시리즈」도 발간되었다.

캐나다내 구입가격과 구입문의는 전화 1-(213)-388-2839.

교회 獻金과 用途에 長老들도 "不滿 많다"

「10·1조」는 현실과 맞지않아

많은연보 교회치장등에 써

구제나 선교사업 거의뒷전

(서울)

십일조. 교인들이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내는 것을 일컫는다. 한국 기독교의 장로들이 잘못 운용되고 있는 십일조 제도를 호되게 자가비판하고 나서 교회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한국장로협의회(회장 오건)는 「장로, 이대로 좋은가, 한국 교회와 헌금」이란 세미나를 가졌다. 이자리에 참석한 장로들은 당장 장로직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회에 십일조라는 엉터리 계산과 신성불가침적인 헌금용도를 짚고 넘어가자는 반응.

주제강연을 한 손봉호교수(외국어대)는 성경귀절에 나타난 헌금대목과 교회역사를 조목 조목 들어 설명한 다음 한국교회의 연보사용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을 가했다. 이어 서정한장로(기독실업인회장)가 헌금은 잘 드려지고 있는가? 강치안장로(전장로협의회장)가 헌금은 잘 쓰여지고 있는가? 송재교수(연세대)가 헌금은 어떻게 쓰여져야하나?라는 강연을 한뒤 질의응답식으로 종합토론을 벌였다.

외국에서 한국교회를 두고 네가지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칭한다. 그 네가지는 기도, 성경, 전도, 연보다. 확실히 한국신자들은 자기소득에 비해서 연보를 많이 바치기로 단연 세계 제일. 예수교장로회 소속 한 장로는 자기 교단의 1년 예산액수가 6백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이로 미루어 일요일마다 수십억원이 교회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의 해묵은 통계이긴하나 1년동안의 교회 헌금액수가 1조3백41억원으로 추산된 적이 있다. 사회조사에 의한 통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추산이기 때문에 실례로 인용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헌금이 교역자 생활비 38%, 관리비 24%, 교육비 16%, 선교비 15%, 상부에 내는 회비 5%, 기타 2%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비율에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손봉호교수는 한국교회가 선교와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에 대한 구제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교역자들의 생활비와 건물짓고 외부치장하는데만 연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역자의 직업화 사치화를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고 비난한뒤 교인들이 나누어 봉사하면 되는데도 굳이 인건비를 들이는 까닭으로 장로들이 게으르고 돈을 더내서 사람을 쓰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교회는 예배당짓고 나서 교육관을 건축하고 묘지를 만든뒤 기도원을 새로 꾸민다. 손교수는 '성전건축으로부터 기독교타락이 비롯됐다면서 금욕과 자기희생을 하지않은채 먹을것 다먹고 지을것 다짓고난 다음 나머지를 도와주는 것은 결코 구제사업이라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송재(연세대)교수는 미국서는 어느 재단이고 설립목적에 60%이상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가받지 못한다고 소개한다음 교회의 존재이유가 바로 선교인데 거기에 15%만 사용해서야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십일조는 농경사회에서 10명이 한사람을 돕는 제도였다. 송교수는 교회의식과 집행이 시대에 따라 변해 왔는데도 유독 연보내는 대목만은 구약시대를 고집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에서 소득의 10분의 1은 컴퓨터를 동원해도 계산하기 힘든액수』라고 말했다.

강치안장로는 감사헌금이다, 심방헌금이다, 생일헌금이다 해서 헌금종류가 세금처럼 가지수 많은 현실을 지적하고 이럴바에는 선교와 구제사업을 위한 헌금및 교회운영을 위한 헌금 두가지로 나누자고 제의했다. 그렇게 하면 교회의 기업화와 헌금이 잘못 쓰여지는 것을 막을수 있다는 것이다.

헌금이 잘 걷히고 성전을 떠들썩하게 짓고 목사가 사치생활을 하고 있는것은 도시중에서도 일부교회에 국한되는 얘기다. 농촌교역자는 10만원도 못받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서울에서 헌금을 잘내는 신자들의 상당수는 어려서 농촌교회를 다녔었다. 서울교회는 농촌교회를 도와주어야할 입장에 처해있다.

강장로는 교단에서 농촌교역자의 최저생활비를 25만원으로 책정, 지급하자는 논의를 10년여동안 계속해왔으나 번번이 좌절됐다면서 이러고도 헌금을 잘 썼다고 할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정한장로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이 교회헌금인만큼 어디까지나 자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야지 신유은사와 기복신앙을 내세워 수탈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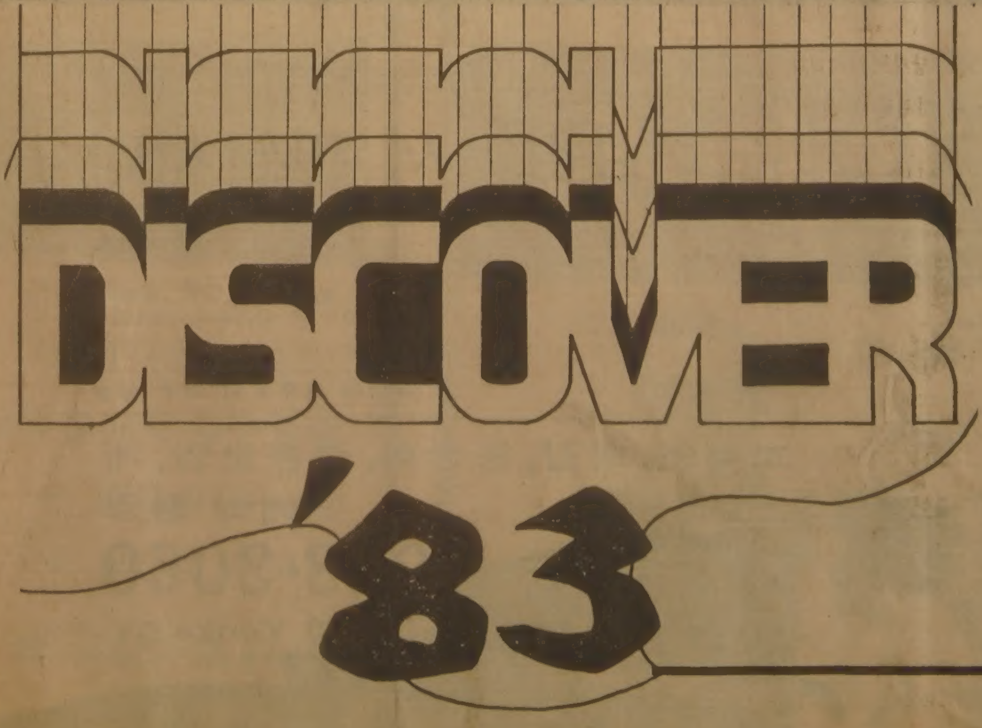
한국교회에서의 연보는 하나님과의 교환조건이 붙어있다는 말들을 흔히 듣게 한다. 이만한 돈을 바치면 그 몇배로 도와주실거라는 사고방식은 다분히 고사지내는 무속신앙과 다를게 없다.

주보에 헌금낸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하면 연보액수가 늘어난다함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 또 설교내용 가운데도 연보가 너무 강조돼있어 모처럼 교회에 나가 주일 하루만이라도 돈공해를 벗어나 머리를 식히려다 그만 실망했다는 말도 많이 들리고 있다. 교회마저 배금주의와 물질주의에 젖어있다면 현대인은 어디가서 안식을 찾을것인가.

이런 교회는 부패해있고 성경말씀으로부터 떠나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로들이 헌금얘기를 털어놓고 비판하는것은 교회부패를 막자는데 뜻이 있다. 신유은사와 기복신앙을 앞세워 신자들의 호주머니를 수탈하는 자칭 부흥사를 하루속히 청소해내자는 이날 발언에 열띤 박수가 터져나왔다.

참석자들은 교회에 내는 돈은 개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을 그 어느때보다 깊이 인식하고 금욕을 동반한 구제사업을 적극 벌일것을 다짐했다.



□강사·고석희목사

(뉴욕연합청년회 지도목사)

■ 때 : '83년 5월20일(금)~23일(일)

■장소 : PINE ORCHARD

■연락처 : 송병현 ☎ 536-8018

주최·한인기독대학생회(K.I.V.C.F.)

후 원·교역자협회, 장로연합회, 교사연합회

한국일보

不時着 中共여객기 送還검토

北京, 직접協商 요청…對話모색

政府당국자 "人道的배려…領空防衛도 완벽"

5일 하오 1시57분께 승객96과 승무원9명등 1백5명이 탑승한 中共의 國營항공사(中國民航) 소속 여객기(BAE 트라이던트) 1대가 北韓상공을 거쳐 휴전선을 넘어 하오 2시10분께 중부전선○○기지에 不時着했다.

6명(1명은 여자)의 中共人 武裝승객에의해 공중납치된 이 여객기는 휴전선을 넘는순간 哨戒중이던 우리공군기에 포착, 유도를 받아 한국땅에 비상착륙했다.

불시착한 中共여객기 처리문제와 관련, 許文道공報처장관은 6일상오 『정부는 한국과 中共이 동시에 가입해있는 航空機 不法拉致억제를위한 협약」(헤이그協約)등 항공기 테러방지 협정의 정신을 충분히 존중해 항공기와 승무원, 승객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정부당국자는 中共측에서 납치비행기문제를 협의키 위해 우리나라와의 직접 교섭을 제의해왔으며 정부는 이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정부당국자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우리측원칙은 여객기승객안전위주의 인도주의에 입각한것이었다』고 밝히고 『이 때문에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인질범 무장해제전에 인질범을 설득, 5일밤 9시5분 승객을 먼저 석방시키도록 했으며 승객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린후 인질범의 무장을 5일 자정에 해제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결과 우리의 領空방위및 민방공태세가 어떤 불의의사고에도 대처할만큼 완벽한 것임이 재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당국자가 밝힌 中共여객기 不時着경위설명에 따르면 이여객기는 당초5일 상오8시15분(현지시간) 滿洲의 瀋陽(舊奉天)을이륙했으나 고장으로 되돌아갔다가 상오10시 다시瀋陽을떠나 上海를향해 1시간가량 비행하던중 납치범들이 大連상공에이르러 조종석을 점거, 조종사에게『臺灣으로가자』고 요구했다.

범인들의 요구를받은 조종사는 機首를北韓으로 돌려 平壤상공에이르러 착륙을시도, 平壤상공을 3회 선회하자 범인들이『서울로 가자』고 요구, 機首를 남으로돌려 남하했다.

大連상공에서 범인들은 조종석의 열쇠를 권총으로 쏴 이를 파괴하고 조종석을 점거했다.

여객기가 機首를 남으로 돌려 南下하는동안 北傀공군의 전술적哨戒나 지상견제는 전혀없었으며 휴전선을넘은뒤 北傀機가 哨戒離陸한 사실이 우리防空網에 포착된 것으로 밝혀졌다.

납치순간 총격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여객기의航法士와 무전사로 밝혀졌는데 이들은 다리에 관통상을입고 우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으며 人命에는 지장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여자가포함된 9명의 승무원과 무장승객을 제외한 일반승객들은 5일밤을 春川세종호텔등에서 묵고 6일하오 서울의 워커힐호텔로 옮겨졌다.

日人승객3명 어제大阪으로

한편 쓰지다·쥰이찌(辻田順一·32·오오사까日中여행사직원) 미야께·요시에(三宅紅·女·56·北九州건설회사직원) 마끼노·미도리씨(牧野美登里·여·30·국민학교교사) 등 일본인승객3명은6일하오6시20분오오사까(大阪)行JAL962편으로 일본으로돌아갔다.

한편 법무부는 이에앞서 불법입국한셈인 이들 일본인의 신분을 합법화하기위해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재난상륙허가서」를 발부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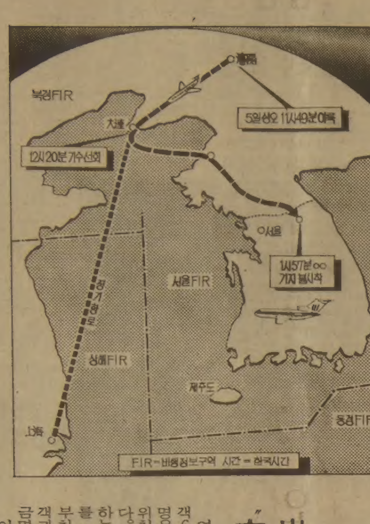
여자낀 武裝한6명이 拉致

百5명搭乘…銃擊戰 둘負傷

瀋陽→上海비행중 "機首 돌려라" 休戰線넘어와

여자武裝승객 얼굴이…

서울로수송하기위해 6일상오 마이크로버스에탄 「무장승객」중 1명(오른편)。 바로그뒤좌석에 얼굴이 밝음보이는 사람은 「무장승객」중유일한 여자인 高東平양。 【陽畵】



出發前夜 권총2정 實彈68發 機內에숨겨둬

"亡命"의사 조사중…승객 機體처리 今明결정

여객기를 납치한 무장승객6명(1명여자)중 2명은 중공 瀋陽체육학교보위처 보위원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은 망명을 원하는 무장승객에대해 조사를 진행하는한편 정부관련부처간의 협의를거쳐 탑승객과 機體등의 처리문제를 금명간 결정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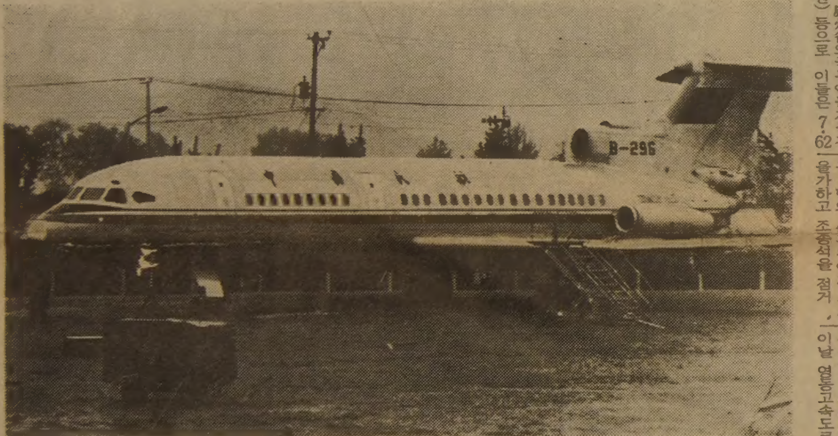
이여객기는 5일낮 1시53분께 우리측레이다에 잡혔으며 초계중인 공군기가 호위하면서 중부전선 ○○기지로 유도했다. 이 때문에 이날하오2시께 서울·경기일원에 경계경보가 내려졌다.

여객기를 납치한 武裝승객은▲卓張仁(36) ▲王彦大(29·遼寧省 물자국직원) ▲安健偉(24·瀋陽체육학교 보위처보위원)▲姜洪軍(23·〃)▲高東平(28·여·卓의 약혼자)▲吳云飛(35·廣州省외국무역총국사직원) 등으로 이들은 7·62㎜권총2정과 68발의실탄을 소지한것으로알려졌다.

이들은 여객기가 출발하기 하루전인 5월4일機內에 들어가 납치에 사용할 권총등을 숨긴뒤 다음날여객기가 離陸,大連상공을지날때 여객석에있는 무전사등2명의 승무원에게 총격을가하고 조종석을 점거, 항로를 한국쪽으로 바꾸게 한것으로 알려졌다.

탑승자중에는 쓰찌다·쥰이찌씨 (32·여행사직원) 등 일본인3명등 외국인승객이 포함돼 있었다.

탑승자전원은 春川시내의 世宗·昭陽호텔등에 분산투숙, 5일밤을 보낸뒤 이날 영동고속도로를 거쳐 서울城東區廣壯洞 워커힐호텔에 옮겨져 자유한국에서 이틀밤을 보냈다.



◇被拉 中共여객기 한국에 불시착한 중공여객기。 어린이날인 5일하오 중부전선 ○○기지에 날아든 이여객기는 중공민항소속BAE 트라이던트 여객기로 뒤쪽의 B296이란 기체번호와 「中國民航」이란 글자가 동체에 선명히 표시돼있다。

아슬아슬 활주로벗어나 잔디밭에 着陸

여객기는 비행장 상공을 저공으로 2바퀴선회한뒤 착륙했다. 활주로를 벗어난 비행기는 잔디밭을 약 3~4백m 질주, 비행장끝 철책 60m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추었다. 굴곡이 진 잔디밭을 활주할때는 기체가 심하게흔들렸고 폭발음같은 굉음이 울렸으며 정지순간에는 시커먼 연기와 흙먼지가 치솟았다.

목격자 玄永吉씨 (29·상업·春川市槿花洞2區 457의16)는 집안에서 야구중계를 보다가 아들 承煥군(3)이 아파 병원에가기위해 집앞에나왔는데 큰 비행기가 집에서 1백m거리에 있는 비행장에 착륙하며 폭발음같은 굉음과함께 연기와 흙먼지가 치솟았다고 말했다.

◇승무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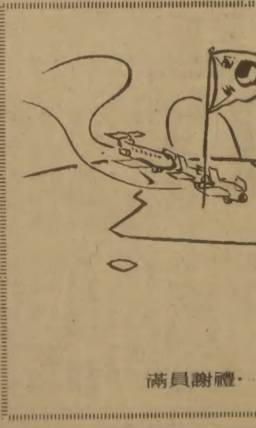
▲기장王以軒(43)▲부기장和長林(33)▲부기장겸항법사王培富(25·부상)馬雲武(33)▲계기사林國榮(34)▲통신원 王永昌(22·부상)▲스튜어디스 程梅(20) 姜民英(20) 李霞(20)

英등 두大使신임장 全대통령 제정받아

全斗煥대통령은 6일상오 청와대에서 마티우르·라만駐韓방글라데시대사와 존·스프레클리 駐韓영국대사로부터 차례로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全대통령은 이어 韓碩鎬駐카메룬대사에게 신임장을 주었다.

社会漫評



地平線

미국인들의 생활은 거의 자동차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자동차를 갖고 운전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成人의 한몫을 하게 된다. 자동차를 손에 넣는데서 생활이 출발되어 차에서 손을 뗄때 끝난다고 표현되는 실상이다. 어떤 문제가 생겨 경찰들이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때는 우선 자동차운전면허증부터 챙긴다.▼백화점서 외상카드로 고객이 물건을 살때 상점측이 신분을 확인하는데도 제일먼저 찾는것은 운전면허다. 직장신분증을 찾는경우는 거의 없다. 成人이 된후라도 그면허증을 갖고있지않으면 정상적미국인층에선 일단 벗어난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민이나 취업관계로 미국에간 한국사람들로선 자동차면허증을탄 바로 그날이 정상적인 미국생활로 끼어든 날이라고 할수있다.▼워낙 땅이 넓고 고립분산적이며 활동적인 미국사회이고보니 자동차는 곧 개인과 가족의 자유를 확보하는 중요 수단이 된다. 애들이 학교를 가건 부인들이 슈퍼마키트서 식료품을 사건, 자동차가 없을때 겪는 고초란 이만저만이 아니다. 人道는 없어도 자동차 길은 있는것이 미국사회다. 이는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표현에 속한다.▼자동차문화가 미국사회서 이처럼 대중화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달된것이 도로다. 州와 州간을 잇는 인터·스테이트·하이웨이는 대체로 4차선이상이다. 주말이 되면 차들이 줄을서듯 질주해 간다. 최고 속도는 시속55마일(88㎞), 오일·쇼크전에는 70마일까지 였다. 시속50마일로 달리는것이 휘발유를 가장 절약한다는 결제속도지만 단번에 20마일씩 감속시킬수가없어 55마일로 제한되었다는 얘기다.▼우리사회도 先進化를 내다보면서 자동차문화가 꽃피려 하고있다. 70년대 이후 고속도로는 전국으로 계속 뻗어나는 중이다. 大田—光州간 湖南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기공식이 어제 論山에서 거행되었다. 어느모로든 반가운 일이다. 교통소통에 편리함은 물론, 金相浹총리의 致辭대로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복지국가건설로 통하는 또하나의 동맥이 우람해 지는것 같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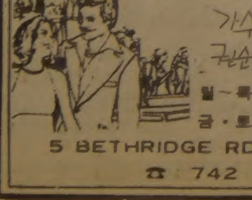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BLOOR—SHAW
SHELL SERVICE
□일반 자동차수리 JOB □토잉
모든 자동차 일반 CHECK
—UP을 컴퓨터—씨스템(SCOPE)
로 즉시 알려드립니다.
한인교포에게는 10% 할인
아리랑하우스옆 주유소
726 BLOOR ST.W
(크리스티×불루어 코너)
☎531—7818, 531—2218 마리오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배성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당신도 후로리다 휴양지에 별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Springwood Homes inc.
아래 소개된 COTTON—WOOD MODEL HOUSE는 Golf Courses, 학교, 쇼핑센터, 교회, 공원에 인접하고 WALT DISNEY WORLD까지 1시간거리, 그리고 해변에서 10분거리의 멕시코만에 있는 Clear Water 근처의 SPRING HILL COMMUNITY에 건축되고 있는 10가지 Model의 별장중 하나입니다.
The Cottonwood
*$21,000 (U.S. funds)

Terms min. 20% down payment
이와 같은 중앙식 냉난방의 2 Bed Room Detached House를 여러분의 구입 선택하는 땅에 마련하실 수 있읍니다.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12페이지의 소개 팜플렛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읍니다.
현지답사와 년중 사용치 않는 동안의 Rental Service를 알선해 드리겠읍니다.
SANG ROCK INC. 일동 이영웅, P. ENG., 장부성, P. ENG., 조규열, 김동천, 권용실, 안영훈
TEL : 661—3174

KANATA
컴퓨터·싸이언스코스
학생모집
저희 Kanata학교는 Minis, Micros and Main frame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사이언스 코스를 가르칩니다.
Diploma in Business Computer programing & systems analysis
우리들의 집중적인 6개월 프로그램은 Cobol, Rpgii, Basic, Data Base and Systems Design을 훈련함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매 새학급은 5주마다 편성되어 시작합니다. 직장도 알선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직장 알선율을 알아보십시요.
1983년 수업시작일은 6월27일, 8월22일, 9월19일, 10월11일.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시면 960—8708 또는 장거리 무료전화 1—800—387—1235로 전화하면 됩니다.
※외국학생, 국내학생 환영함.
Kanata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Inc.
10 St. Mary Street, at Yonge, Fifth Floor,
Toronto, Ontario M4Y 1P9
Telephone (416) 960-8663

초조와 安堵… "빨리 가고싶다"

―첫 한국땅 밟은 不時着 中共人들의 표정

담배꽁초 수북

중공여객기 탑승객들이 서울로떠난뒤 이들이 투숙했던 2개의 春川시내 호텔객실에는 이들의 초조한 심경을 말해주듯 재떨이마다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이들이 피운 담배는 우리나라 담배처럼 모두 20개비들이로 人蔘煙 鳳凰 劍門 新 味梅 大生産香烟 大前門등 각양각색. 요즘은 우리나라 시골에서도 보기힘든 무명실이 있는가하면 사이다로 보이는 「桔子汽水」등의 음료수병과 天津市에서 생산된「藍天」이라는 치약도 끼어있었다.

이들 상품의 도안및 포장은 청색 홍색등의 원색이 많았다. 특히 한자이외에 영어표기가 두드러질만큼 많은것이 특색이었다.

또 한자도 많이 간소화돼 「瀋陽」은「沈阳」으로, 음료수공장은「汽水厂」으로 쓰는등 웬만큼 한자를 아는사람도 얼른 이해할수 없을 정도였다.

한편 기내식으로 제공된것으로 보이는 빵은「中國民航」과「Air Cartering」을 함께 표기한 종이곽속에 들어있었는데 독일흑빵처럼 검고 딱딱한 편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호텔안의 물건을 깨끗이 사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

담배갑처럼 찢기고 구긴 것은 휴지통에 그대로버렸으며 메모지등은 대부분찢었으나 식사때 무엇을 먹을까하고 생각한듯「食堂 自由選擇」등을 끄적거린것도 있었다.

특히 이들은 침대시트는 물론 온돌방의 이불이나수건등을 차곡차곡 개어놓기도했다.

종업원에 「팁」도

世宗호텔은 객실에 냉장고가 없어 이들은 5일밤 사이다35병과 콜라 10병등을 주문해 마셨고 대부분 시원한 보리차를 자주찾았다. 昭陽호텔의 50대남자 1명은 객실부종업원 梁明樂씨 (26)에게 보리차심부름을시킨뒤 중공에서 고급담배1갑을 살수있다는 「貳角」짜리 지폐 1장과 新韓담배를 팁으로 주기도 했다.

이들은 6일상오 호텔에서 TV를보다가 핫팬티차림의 젊은여성들의 율동있는 아침체조광경이 나오자 『하오』(好)를 연발하며 박수를 치기도했다.

한국의 솔담배50갑을 나누어 피운뒤 『담배맛이 좋다』고 칭찬했다.

「建平」이라고 씌어진 성냥갑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종업원들에게 중공담배를 권하기도 했다.

昭陽호텔에 투숙한 승객들은 냉장고의 음료를 애용했는데 5명이 투숙했던 101호실은 맥주2병 사이다2병 깡통주스 6개등을 마시기도 했다.

처음엔 당황… 가방받아주는것도 거절

「TV체조 프로」보고는 "하오(好)" 연발

어린이에 선물도

昭陽호텔301호에는30대부부와 5세가량의 여자어린이가 함께 투숙했는데 호텔을 떠나기전 이어린이는 1층로비에있는 기념품가게의 목각인형을보고무척 갖고싶어해 가게주인金相河씨 (49)가 초콜릿과 카라멜1갑을 대신 선물로주었다.

春川시청에서는 6일 비가내리자 이들에게 우산1개씩을 마련해 주었다.

이들은 호텔을 나설때밝은표정으로 호텔종업원들에게 고맙다고 일본어로말하기도했다.

한중공인은『빨리 본국으로 돌아가고싶다』고 일본어로 다른승객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世宗호텔측은 6일아침 식사로 밤새 준비한 햄애그샌드위치, 토스트, 코피, 오린지주스등의 아침정식을 내놓았고 昭陽호텔은토스트, 달걀프라이2, 코피등을 제공했다. 간밤의 저녁식사때와는 달리 거의대부분이 접시를 깨끗이 비웠다.

이들은 이날 상오9시45분께 대기중인 중앙고속버스 4대에 관계기관 직원들과 함께 분승, 경찰차의 선도로 서울로 떠났다.

이들이 고속버스에 오를때는 春川시민 1백여명이 호텔입구에 몰려와 손을흔들어 환송했는데 이들역시 손을 흔들어 답례하기도했다.

고속버스안에는 특별히 서비스할 물건은 준비되지 않았으나 경기6바1359호 고속버스(운전사 朴龍萬·42)안내양 崔永姬양(22)은 『한국여성을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상냥하게 대하겠다』고 말했다.

世宗·昭陽호텔에

이들은 5일하오 9시50분 世宗호텔과 昭陽호텔에 각각 도착했다. 世宗호텔로간 50명은 하오9시 강원운수소속 江原5아1114호 버스(운전사 崔龍浩·50)와 中央관광 임28094호 버스(운전사 李慶載·42)에 나눠타고 호텔에 도착했다.

도착즉시 버스를 함께타고온 통역담당 馬成忠씨(60·중국집 陳英館주인)가『여기는 잠자러 온것이니 편히 쉬어라』면서『나도 중국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이니 잘 대해줄것』이라고 인사를 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긴장된 표정이었으며 맨처음 호텔에 들어선 국민복차림의 안경낀 50대남자승객은 검은색 비닐가방을 종업원이 받아들려고 하자 거절하기도 했다.

世宗호텔에 투숙한 승객들은 곧장 객실로 들어가 1·2층의 양실에는 2명씩, 3층의 온돌방 4개에는 4명씩 분산수용됐다.

中央관광버스운전사 李씨에의하면 승객들은 버스안에서 가방을 시렁에 얹지않은채 무릎위에 꼭껴안은 사람이 많았으며 초조해서그런지 담배를 많이 피웠다. 대부분 필터가 거의 탈정도까지 피웠다.

여유있는 武裝승객

한편 무장승객이 탔던 江原운수 운전사 崔씨에의하면 무장승객들은 여유있는 표정으로 서로 웃으며 얘기를 나눴다.

이들이 世宗호텔에도착, 앞차승객 8명이 내렸을때 기장 王以軒씨 (43)가『사진촬영을 하면 안된다』며 내리기를 거부, 15분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사진기자들을 모두 옆으로 비키게한뒤 하차를 계속했다.

승무원들의 감색복장은 서방의 민간조종사들과 비슷했는데 외제로보이는 손목시계를 차고있었고 鳳凰담배를 피우며 통역을맡은 馬씨와 적십자사직원들에게 권하기도 했다.

한편 승객들의 가방에는 흰바탕에 청색글씨로「中國民航」과「旅客手提物品牌」로 앞뒤에 새겨진 화물꼬리표가 달려있었다.

이날 승객들의통역은 馬씨와 馬씨의 동생 馬成三씨(45·한의원경영)등 화교3명이 맡았고 통역이모자라 관계자들은 이들과거의 필담으로 의사를 통했다.

이들의 객실은 世宗호텔 총무주임 申允根씨(37)가 웨이터 4~5명과함께 배정했다.

승객들중에는 한국계 중국인2명이 끼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1명은 50대남자이며 1명은 30대초반의 여자이지만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중 남자는 버스에서 내릴때 사진기자들이 촬영을하자 『날 찍어서 뭣해』하고 또렷한 한국어로 항의했으며 여자는 버스에서 내리다말고 『또 찍어』라고 퉁명스럽게 한국어로말해 취재진들과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또렷한 한국말답변

이 남자는 또 호텔투숙후 관계자들의 질문에『고향에 가고싶다』,『떨리지않는다』고 또렷한 한국말로 대답했다.

승객들은 당초 樂園洞30의1 昭陽호텔에 53명이수용됐다가 이들중 日本人3명은 밤11시52분 도청뒤쪽의 鳳儀洞 世宗호텔로 옮겨졌다.

世宗호텔에는 미국인등 장기투숙객이 많았는데 관계당국은 이들을 다른곳으로 옮기게하려 했으나 적당한 장소가 없어 中共승객들때문에 방이 묶이기도 했다.

호텔에 도착한 승객들은 우수한 시설을 눈여겨보는 표정이었으며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자도록 문을 잠그는 요령을 알려주자 열쇠없이 오른쪽으로 돌리기만하면 열렸다가 닫기만하면 잠기는 객실도어가 신기한듯 여러차례 도어로크를 열어보기도 했다.

이들의 관심은 한결같이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갈수있느냐에 집중돼 말이 통하지않는 관계자들에게「回中國」이라고 한자로 써보였다. 무사히 갈수있다고하자「見家族」이라고 써보이면서 하루빨리 가족들을 보고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승무원들은 통역자 馬씨와 1시간30분가량 대화를 나눈뒤『피곤해서 지쳤겠다』고 말해 馬씨가『빨리 본국으로 돌아갈수있게 해줄것』이라고 대답하자『고맙다』고 작별인사를 했다는것.

두호텔 경비삼엄

이날 두 호텔의 경비는 삼엄했는데 일반인은 물론 취재진들의 출입을 일체통제, 6일새벽1시께부터는 두호텔에서 전화마저 제대로 받지않았다.

한편 호텔측은 객실40개중 미국인 장기투숙객이들어있는 방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29개 객실을 모두 제공했다. 무장승객 6명은 침대방 하나에 함께 투숙토록 해줄것을 요구, 世宗호텔 301호실에 함께 투숙했으며 2층에는 주로 부부승객들이 투숙했다.

승객들은 객실에 들어서자 곧 TV를켰으며 옷도리를 벗어 걸고 방안을 서성거렸다. 미국인8~9명이 객실밖으로 나와 놀란듯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이들이 호텔에 들어서기전 春川市보건소 예방의학계의 李熙坤씨 (31)등 직원3명이 하오7시에 통보를받고 9시께 객실을모두 소독했다.

이들중 일부는 호텔방에 들어간이후 통역인들과 여담을 나누기도 했는데 昭陽호텔208호실의 한 남자는『한국사람들은 내집을 얼마나 갖고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승객들은 6일새벽 1시께 야채스프 야채샌드위치등 호텔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뒤늦게 저녁을 때운뒤 잠자리에 들었다.

종업원에 紙幣「貳角」팁으로 "날찍어 뭘해" 우리말 대꾸도

투숙객、박수로환영

승객들을실은 버스는 비상등을 켠 경찰백차2대와 검정색승용차1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4시간20분만인 6일하오2시10분 워커힐호텔에 도착했다.

이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출입에 나와있던 호텔 일반투숙객、호텔직원、보도진들의 박수를 받으며 10분만에 오찬장인 1층무궁화홀로 들어갔다.

이호텔인사과 崔允僖양(21)등 10명의 여직원들로부터 백합과장미、카네이션、글라디올러스등의 큰 꽃다발을 건네받을때는 대체로 서먹서먹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일부승객들은 미소를띠며 박수를치는 환영객에게 손을 흔드는등 여유를 보이기도했다.

1호차에서 내린 승무원들은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으며 때로는 어색하게 웃기도 했다.

꼬마손님 어리둥절

보호자로보이는 키가큰 어른에게 안겨들어온 어린이는 보도진의 카메라플래시가 터지자 눈이부신듯두눈을 깜박이며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버스에서 내릴때 승객들은 출발지에서부터 따라온 우리측 안내원들과 악수를 교환했으며 버스창틀에는 빈 우유통과 햄버거껍질이 놓여있었다.

◇양장한 女승무원들 春川에서 1泊한후 6일 서울로와 쉐라톤호텔에 들어서며 직원들로부터 환영받는 여승무원들. 다른승객에 비해 비교적 말쑥한 양장차림으로 훤칠한 키에 미모였다.

◇中共人의 生必品? 중공승객들이 묵었던 春川의 두호텔에 남긴 음료수병과 담배갑, 치약, 칫솔, 機內食, 약봉지등. 한자가 많이간소화되고 영어표기가 두드러진것이 특색이다.

메아리

黃昏의…

지난 날의 할리우드女王 글로리어·스원슨이 죽었다. 벌써 지난 달 4일의 일이다. 향년 84세.

그녀의 訃音은 작으나마 우리나라 신문에도 실렸다. 기사는 20년대 할리우드를 주름잡았고, 50년 銀幕에 복귀하여, 빌리·와일더 감독작품『황혼의 가로수길』에 출연했다는 그녀의 경력을 소개하고 있다.

그녀의 代表作이라고 할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공개됐었다. 그래서, 나이든 영화팬이라면, 그녀의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적지않을텐데, 그들중 또 적지않은 사람이, 그녀의 訃音을 읽고 좀 의아했을지도모른다.

신문에 소개된 영화의 原題는「선세트·불리바드」다. 「선세트」는「해넘이」또는「황혼」,「불리바드」는「가로수가 있는 큰 길」이란 풀이가사전에 나와 있다. 그러니,『황혼의 가로수길』은사전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이든 영화팬을 의아하게 한것은 바로 이 충실한 번역이다. 그들은『선세트大路』란 題名으로 그 영화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선세트·불리바드는 로스앤젤러스를 東西로 관통하여, 영화배우들이 사는 호화주택지를 지나는 큰 거리다. 영화속의 늙은 여배우 글로리어·스원슨은 이곳에 살며, 재기를 꿈꾼다. 그래서「선세트」란 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읽을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화제목 자체는 어디까지나 거리 이름이다. 그나마 정작의 선세트·불리바드에는 가로수가 없다. 결국『황혼의 가로수길』은 誤譯이다.

달포나 지나서 이얘기를 끄집어 내는것은 通信 번역의 실수를 꼬집자는 뜻은 아니다. 이 誤譯을 꼬투리삼아 地名번역, 그것도 딴나라 地名의 韓譯이 아니라, 우리地名의 外國語譯을 생각해 보려는 것뿐이다.

위에 본『선세트大路』처럼 외국의 地名은 固有名을 뺀 나머지를 번역하는것이 通例다. 뉴욕市·뉴욕州, 南아메리카·北캐롤라이나州 따위다.

그렇지 않고, 地名의 뜻을 몽땅 번역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 喜望峰·金門橋·沿海州·5大湖·5番街등 유명한 곳일수록 그런 예가 많다. 이 투로 하면「선세트·불리바드」는「黃昏大路」일수가 있다.

어느 경우건 地名의 일부나마 번역이 됨으로 해서, 우리는 그 地名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고, 친근감을 느낀다.

이 이치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地名의 외국어표기는 좀 별나다. 고집스레 音만 영어알파벳으로 옮겨적어 외국인으로서는 읽고 발음하기조차 어렵고, 그 地名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도 알수 없게한다.

쉬운 예가 秘苑이다.

文敎部방식으로 표기한 秘苑은「BIWEON」, 그音은「바이·위언」으로 읽히기 십상이다. 매큔·라이샤워式의「PIWON」은「피·원」이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秘苑의 뜻을 英語로 옮긴「시크릿·가든」(秘密의정원)이 어떤가. 우리나라를 아는 외국사람은 秘苑을 그렇게 부른다. 北京의 紫禁城도, 어려운 中國音으로 표기하지않고,「포비든·시티」(禁斷의城)로 통한다.

獨立門도 비슷한 경우다. 英語알파벳의「독·립·문」이 아니라,「인디펜던스(獨立)·게이트(門)」가 더 그럴듯하다. 더구나 英語의「독」은 개요,「립」은 갈비가 아닌가。

南大門도「냄·다에·먼」으로 읽히는 영어표기보다는 외국인들이 通稱하는대로의「사우드(南)·게이트」, 南大門市場은「사우드·게이트·마킷(市場)」으로 족하다.

마찬가지로, 景福宮은「경복·팰리스(宮)」, 光化門은「광화·게이트」가 합당하고, 世宗路·乙支路·忠武路등 거리 이름도,「××RO」가 아닌,「세종·불리바드」「을지·스트리트(거리)」,「충무·애비뉴(거리)」가 더 친절하다.

그렇기에 觀光公社가 낸 관광지도에는 번역된 地名이 많다.「노드(北)·포트리스(要塞)」와「사우드·포트리스」등이다. 각각 北漢山城과 南漢山城인데, 읽기조차 괴로운「PUKHANSANSEONG」보다는, 백배 친절한것이다.

행정구역중에도 번역했으면 싶은것이 더러있다. 예컨대 南道·北道할때의 南과 北 그리고 道다. 앞서 본 北캐롤라이나州와 같은 투를 빌면, 慶尙北道는「노드·경상·프로빈스(道)」, 慶北은「노드·경상」, 더 줄게는「N·경상」이다. 이것은 선교사등 開化期외국인들이 慣用하던 방식이다.

地名의 외국어 표기나 외국어 道路標識는 어디까지나 외국인 보라는 것이다. 그 표기가 외국인이 읽기 편해야 함은 물론, 번역해서 좋은 地名은 번역해 표기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 외국어道路標識를 文敎部방식으로 하느냐, 매큔·라이샤워式으로 하느냐만 따지지말고, 한번 검토해 보기바란다.

金昌悅【編輯委員】

記者의 눈

休日의「不時着취재」

신문休刊日인 어린이날에 편집국 젊은기자6명이 春川으로야유회를갔다는것부터가 행운의여신이 보낸미소였을것이다.

우리 일행은 春川역에서 택시를 탔을때 전투기2대와 낯선 항공기한대가 착륙자세를 취하는 것을 무심코 바라보며 운전사에게『春川에도큰비행기가 내릴수있는활주로가 있읍니까』라고 물었다. 강변로에서 속력을 내고있던 운전사는『물론이죠. 큰 수송기들이 수시로 이착륙합니다』라고 가볍게 답변하는 바람에 우리는 더이상 의문을 품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뒤이어 라디오에서「연습이 아닌 실제경보」를 강조하는 경보가 방송됐을때부터 어느곳에선가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예감으로긴장했다. 소주를 마시는동안 마는둥하고 春川시내로 돌아왔을때 시내에는 이미 긴장이 깔려있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최근의 이웅평씨귀순, 그보다 전의 吳榮根씨귀순통으로 이어진「실제경보」사태는 바로 우리가 서있는 강원도 春川에서 발생했던것이다.

기자에게 현장은 고통과 비애의 장소이기도하지만 일단 현장에있다는 사실은 안도감과함께 피를뛰게하는 의욕을 솟게한다.

중공비행기의 ○○기지 불시착. 일순 취기가 싹 가시는듯 했다. 회사연락과 현장출동―우리는 달리기 시작했다.

○○기지 주변에 나와있는 春川의 TV, 연합 지방지기자들을 보며 중앙지로서는 우리가 가장 선착임을 확인했다.

동시에 宜寧사건, 개誤報사건때와 같은 지방주재기자제도의 폐지에서 비롯된 중앙지의 비애가 반추되기도 했다. 경보와 국방부발표와의 時差 역시 지방언론들의 독무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현장접근이 통제된 상황에서 우리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듣고, 컬러필름을 흑백필름으로 갈아끼우고 현장을 카메라에 담는데 열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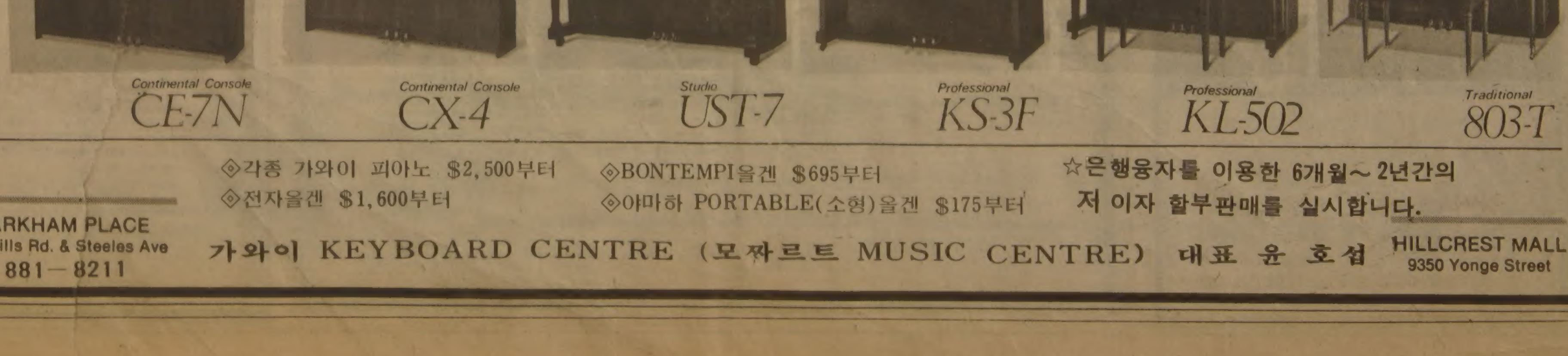
회사에 첫번 연락했을때 이미 30분전에 출발했다는 1차 임시취재팀은 우리 일행과 그로부터 1시간후에야 합류했다. 다시 2차 취재팀이 인쇄돼나온 호외를 갖고 도착한것은 9시。 타사기자들은 월등하게 많은 본사기자들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으로보아 어찌 현장에 출동한 우리社 기자수를 많다할수 있을까.

보도진과 주민에 둘러싸여 중공인들이 호텔에 들어서고난후 3시간넘도록 우리들의 취재는계속됐다.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예상치못한 9시간의 마라톤취재였지만 역사적현장에있었다는행운은 피로를잊게했던것같다.

【柳東熙편집부기자】

개업5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



Continental Console CE-7N | Continental Console CX-4 | Studio UST-7 | Professional KS-3F | Professional KL-502 | Traditional 803-T

◈각종 가와이 피아노 $2,500부터
◈전자올겐 $1,600부터
◈BONTEMPI올겐 $695부터
◈야마하 PORTABLE(소형)올겐 $175부터

☆은행융자를 이용한 6개월~2년간의 저 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합니다.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낯선旅行」…긴장은 다소 풀리고

서울 워커힐호텔서 이틀째밤 보내

뷔페식당선 中國민요연주

王機長 "감사하다" 인사말

◇機長의 미소 쉐라톤·워커힐 호텔에 도착한 기장 (왼) 등승무원들이 꽃다발을받고 미소를지으며 차에서내리고있다.

어린이날 한국을 예고없이 찾아온 중공승객들은 春川에서 1泊한후 6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로 숙소를 옮겨 한국의 이틀째밤을 보냈다.

이들은 이날 한복으로곱게 단장한 여자종업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워커힐호텔에 도착, 중국식·일식·양식·한식등으로 마련된 뷔페로 늦은 점심을 먹은후 저녁에는 워커힐쇼를 관람한후 잠자리에 들었다.

이들은 뜻하지못한 낯선 여행에 조금은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호텔종업원의 친절과 연도시민의 환호에 안도의 표정을 짓기도 했다.

중공여객기의 승객과 승무원들은 5일밤을 春川世宗호텔과 昭陽호텔에서 보낸후 6일상오 버스편으로 春川을출발, 原州를거쳐嶺東고속도를경유, 하오2시10분 쉐라톤·워커힐호텔에 도착, 여장을 풀었다.

이들은 이날 하오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동안 워커힐호텔 지하 1층의 가야금극장식당에서 하니비민속쇼와 빅·서커스쇼를 관람하면서 저녁을 먹은후 각자배정된 객실에들어가 한국에서의 두번째밤을 보냈다.

워커힐에서의 점심

2시20분께 오찬 식장인 워커힐호텔 1층 무궁화홀의 10개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승객들은 낯선듯 주위를두리번 거렸다.

승객들이 자리를 잡는동안 피아노3중주가 우리동요「나의살던 고향」을 연주했으며 이들은 안내를맡은 10명의 서울시내 각대학중문과 여대생들에게 궁금한것을 이것저것 묻기도 했다.

한편 승무원 남자 4명과 스튜어디스 4명은 별도로 무궁화홀옆 볼룸3에서 식사를했다.

호텔 프런트에 근무하는 화교출신 劉文娟양(23)이 중국어로『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궁금하거나 필요한것이 있으면 옆에서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껏드세요』라고 인사말을 했다.

승객들은 곧이어 종업원들의 안내로 뷔페식당으로 갔는데 대부분이 양식보다 중국식이나 한식을 먹었으며 자기들끼리 무어라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이날점심은 중국식, 일식, 양식, 한식등 4가지로 준비됐다.

식사중 피아노3중주가 우리가곡과 중국민요「思想曲」및 영화「스잔나」의 주제곡등을 계속연주했고 또 워커힐호텔의 중국음식전문점「金龍」의 요리사인 劉明씨가 식탁을 돌며 반갑게 인사를하는 모습도 보였다.

승객들중에는 식탁주변을도는 중국인 요리사들에게『음식도 맛있고 괜찮다』『이집이 국가것이냐 개인것이냐』며 묻기도했다.

이들은 대부분 식사를많이 하지않아 뷔페식탁으로 2번이상 나가 음식을 가져간 사람은 여자2명등 4∼5명에 불과했으며 더러는 별로 늦지않아 종업원들이 날라주는 모습도 보였다.

남자들 중에는 시간이흐르면서 맥주를 청해 마시는 사람도 있었으나 일부는 표정이 굳어 있었고 오히려 여자들이 쾌활한편이었다.

이날 중국요리는 대부분 고급음식으로 승객들은전에 많이 먹어보지않은것처럼 다소어색해 보였다.

◇모처럼 푸짐한 食事 春川에서 한국의 하루밤을 지낸뒤 6일하오 서울워커힐호텔에 투숙한 탑승객들이 뷔페에서 모처럼의 푸짐한 점심식사를 들고있다.

"한국 잘안다" 表情느긋

武裝승객 6명은 모두가 公職者

탑승객

탑승객은 승무원 9명과 승객96명등 모두 1백5명.

승무원은 기장 王以軒(43) 부기장 和長林(33)을 비롯, 항법사2명 통신원1명 계기사1명 스튜어디스 3명인데 이가운데 항법사1명과 통신원1명이 각각 총상을 입은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승객들은 중공인이 92명, 일본인3명, 소련군장교가 1명으로알려졌다.

연령별분포는 20대가 9명, 30대가 21명, 40대가 14명, 50대가 39명, 60대가16명, 신분불명자 6명이다.

일본인들가운데 미야께·요시에(三宅紅·56·여·전설회사 사원)씨와 마끼노·미도리(牧野美登生·30·여·후꾸오까국교교사)씨는 일본 北九州 혼성합창단의 여성멤버로 중공의 大連에서열리는 연주회에 선발돼 중공을 여행중이었다.

또 쓰지다·슈이찌(辻田順一·32)씨는 일본의日中여행사직원으로 역시 중공여행중 납치극을 맞은것이다.

중공승객들은 대부분 瀋陽의 대기업·백화점·공장등의 회계경리책임자들로 최근에 개정된 중공세법에 관해 上海로 교육을받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직업별분포를보면 승무원9명을 제외, 국가기관원12명,은행원2명, 노동자48명,의사2명 건축기사5명,상업14명,기타10명(신분불명6명,유아1명,노인3명)으로 되어있다.

중공승객들은 한결같이『한국이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로 알아왔다』고 말했는데, 신변도 안전하게 여긴탓인지 긴장감은 찾아볼수없었고 모두느긋한 표정이었다.

무장승객

6명의 무장승객중 주모자는 卓長仁(36)으로 알려졌는데 남자5명과 여자1명이다.

신원이 高東平(28)인 여자승객은 주모자 卓과 약혼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군후 공직자인것으로 알려졌다. 무장승객의인적사항은 다음과같다.

▲卓長仁(36·주모자·遼寧省물자국직원) ▲王彦大(29·遼寧省물자절약환경보호설비청근무) ▲安健偉(瀋陽체육학교보위처보위원) ▲姜洪軍(23·〃) ▲高東平(28·卓의애인·요동성물자국직원) ▲吳云飛(35·廣州省외국무역물자구매원).

車窓밖 구경에 열심

안내양보고 "미인이다"…우리말 연습도

버스속

중공승객들은 春川에서 서울로 오는동안차 안에서 대부분말이 없었으나 차창밖으로 전개되는풍경구경에는 열심이었다.

이들을태운 4대의버스가 지나는 길가에는 시민들이 나와환영의 박수를보냈는데 버스는 6일상오9시18분 春川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버스는 1호차에 24명, 2호차에 23명, 3호차에 24명, 4호차에 26명이탑승했다.

4호차의 버스안내양 李淑熙양은 무거운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계속통로를 오가며『필요한것이 없느냐』며 상냥한 미소를 띠었으나 이들은 굳은표정을 풀지않았다는것.

그러나 가남휴게소에서 15분간 휴식하면서 우리정부관계자들이 우유 1통과 햄버거 1개, 10개들이 만두1통씩을 간식으로 나눠주자 대부분 배가 고픈듯 순식간에 먹어치웠고 이후부터 분위기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이때부터 승객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간혹 웃기도했고 일부는 통역관들에게『중국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기장 王以軒씨(43) 부기장 和長林씨(33)등은 1호차에 탔는데 통역관이『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라는 우리말을 가르쳐주자 손바닥에 써가면서까지 연습하기도 했다.

이후부터 분위기는 한층 누그러져 기장은 1호차의 안내원 任賢淑양(26)에게『뷰티풀』『팬타스틱』등 영어를 연발하면서 任양의 미모를 칭찬했는데 스튜어디스들은 영어를 거의 하지못했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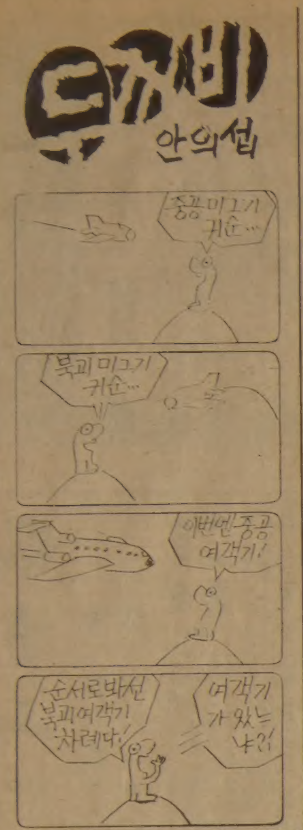
또 기장은 버스안에서『비행기가 착륙할때 앞바퀴가 고장이 났었다』며 비행기결정을 하며 비행장이 좁아 제대로 이륙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하기도 하더라는 것.

한 승무원은『이번에 불시착하지 않았으면 한국을 알지도 못했을것이다』고 하기도했다.

또 韓양이 멀미를 일으킨 한 중공인에게 다가가 도와주자 뒷좌석에 앉았던 한사람은「貳角」이 쓰인 지폐2장을 주었고 옆좌석의 사람도 조금작은 지폐2장을 주었는데 큰 지폐를준사람은 다시 은화1개를 더 주더라는것.

버스가 鷺梁津한운동장주변을 지날때 통역관이88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것이라고 소개를해주자 모두 밖을 쳐다보며 구경에 열심이었다.

두꺼비 안의섭



◇全대통령내외가「어린이날」을 맞아 모범어린이들을 접견하고 있다.【崔東完기자찍음】

"씩씩하고 착하게 자라도록"

全대통령, 모범어린이들과 茶菓

全斗煥대통령은 어린이날인 5일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청와대綠地園에서 서울어린이賞 大賞을 받은 신승균군(서울 참서국민학교6년)등 모범어린이 3백92명과 永樂보린원합창단37명을 위해 다과를 베푼뒤 이들에게 우표책1권씩을 선물로 주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주인공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나라의 내일을 위해 씩씩하고 착하게, 밝고 맑게 자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자리에는金聖培서울시장, 具本錫서울시교육감, 李元洪한국방송공사사장이 배석했다.

「훌륭한 어머니」들 李順子여사가 招致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6일 하오 李初順씨(59·全北高敞郡高敞邑石橋里)등 어버이날을 맞아 한국부인회가 선발한「훌륭한어머니」10명을 청와대로 초치, 다과를 베풀었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巨額수표절취범 檢擧…共犯수배

6차례 9천萬원 훔쳐

◇범행 7일만에 경찰에 검거된 林東洙씨.

거액수표도난및 3천만원 인출사건 범인이 1주일만에 붙잡혔다.

부산 海雲臺경찰서는 5일 절도등 전과6범 林東洙씨(55·서울銅雀區 上道4洞 279의534)를범인으로 검거, 범행일체를자백받고 갖고있던 국민은행서울大林洞지점발행 1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등 자기앞수표17장(8백80만원)과 1백65만원이든예금된 서울신탁은행 저축예금통장1개·5푼짜리 다이어반지1개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林씨의 자백에따라 지난3월말이후 6차례에걸쳐 함께 범행을한 咸允敎씨(59·전과8범·서울西大門區延禧洞151의159연희연립A동 202호)를 수배했다.

78년 大田교도소 복역당시 알게된 이들은 지난3월30일 하오5시께 서울中區武橋洞 모다방에서 우연히만나 범행을 모의한뒤 지금까지 서울·부산·仁川등지 은행창구에서 6차례에걸쳐 모두 9천여만원을 네다바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의하면 林씨는 지난달29일 하오3시께 서울中區明洞2街59의5서울신탁은행본점 4번 온라인창구앞에서 한국산업은행 섬유화학부 직원 朴鍾熙씨(22)가 거액의수표와 입금표를 창구대에 놓고 기다리는것을 보고『뒤로 물러서서 기다리라』며 은행안내원인것처럼 가장, 수표와 입금표를 훔쳤다는 것.

林씨는 망을 보던 咸씨와 함께 길건너 한국산업은행 본점으로가 3천만원을 현찰로 바꾼뒤 1백여m 떨어진 곳에 호텔택시정류장으로가 택시를 타고 汝矣島 모제과점으로가 林씨는 1천3백50만원, 咸씨는 1천6백50만원과 수표를 각각 나눠 가졌다.

林씨는 범행후 5일동안 서울의 다방을 전전하다 4일 상오7시30분 고속버스편으로 부산으로 내려가 전부터 알고지내던 부산海雲臺區佑1洞618의21 관광여인숙(주인 황어진·53·여)에 숨어 지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발생후 범행수법이 81년6월 농협부산서동지소 60만원 네다바이사건과 비슷하다고 판단, 동일수법으로 검거돼 金海교도소에 수감중인 張모씨(48)를 만나 林씨의범행임을 확인했다.

어떤「만남」

中共승객 通譯맡았던 馬成忠씨

밤새 보지도못한 故鄕 생각으로…

어린이날인 5일하오 중부전선○○기지에 불시착한 중공여객기는 뜻밖이면서도 수많은 화제를 안고 날아들었다. 그러나 馬成忠씨(60·사진)에게는 큰충격과 함께 설렘을 안겨줬다.

春川市 昭仙洞에서 東美館이란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있는 馬씨가「뜻밖의 손님」을 맞는데 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의 의외성을 더듬어 볼 수 있다.

馬씨는 이날 2만6천여명의 한국 화교를 대표나 하듯 중공승객들과의 통역을 도맡아했던 것.

馬씨는 하오3시께 비행장부근에 사는 동생成三씨(46·한의사)로부터 전화연락을받고 중공여객기가 불시착한 사실을 알았다. 어린이날이라 어느날 보다도 주문이 밀려 정신없이 바빴지만 동생의 전화를 받은뒤 부터는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먼저 비행장으로 달려나갔던동생이 승객들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형제는 아예 일을 제쳐놓고 독한 배갈을 두병이나 비웠다.

밤10시께 통역을 해달라는 반가운 연락을 받고 세종호텔로 단숨에 달려갔다. 웬만큼 올랐던술기운대신 새로운 흥분감이 온몸을 휩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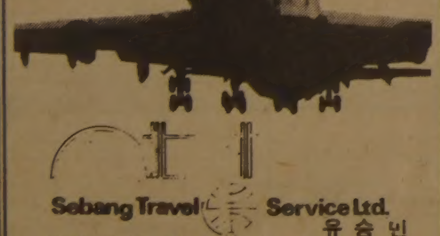
호텔앞에서 버스에 올라가『반갑습니다. 나도 중국사람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승무원4명과 승객20여명을 만났다. 모두가 뜻밖의 사태에 놀랐기 때문인지 딱딱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도와주러왔다』는 말에도 긴장감을 풀지않았다.

다시『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이고 당신들을 잘보살펴줄것이다』고 여러차례 말하자 비로소 경계심을 풀고 담배를 권하며 피납경위등을 털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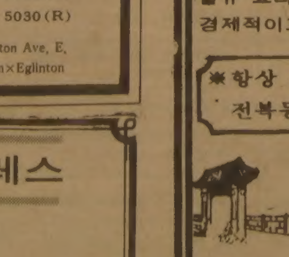
한 기술지도원은『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잘사는 나라라는것을 듣고있었다』며 서툰 한국말로『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다. 2시간남짓 이야기를 나눈뒤 헤어질때『동포가 잘사는것을보니 기분이 좋다』며 악수까지 청하는 승객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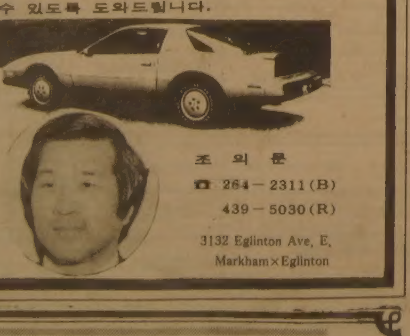
馬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들뜬 마음을 잡을수가 없었다. 이유를 알수가 없었다.

元山에서 태어나 한국사람이 다된 그로서는 보지도못한 고향 山東省이 그리워서 그랬을까? 그래도 馬씨는 밤새잠을 이루지 못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기때문인가 보다.【春川=姜英奎기자】

세방여행사
업무안내
⊙한국·미국·캐나다·유럽등 항공권판매
⊙스키, 플로리다, 유럽등 관광패케지
⊙방문초청, 수속, 번역등 서류작성
⊙캐나다, 미국 각종대학 유학상담
⊙호텔, 렌트카예약및 기차표판매

Sebang Travel Service Ltd.
720 Spadina Ave, Suite 104 Toronto, ONT. M5S 2T9
유승빈 (416)928-3335 (R) 532-9581
△몬트리올(정관성)514-672-8399
△위니펙(이영호)204-783-0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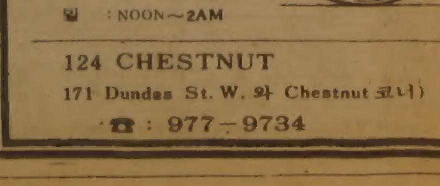
⊙일인당 $32.95부터
(세금및 팁 포함) 웨딩스페샬
—50명 이상을 위주로—
Fruit Punch, full dinner, 포도주 2잔, 술, 뱅쿠엘 룸, 하루밤 숙박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nue East, Don Mills
(416) 449-4111 Catering 매니저 (Alison MacKinnon)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한구 ☎: 247-7161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의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오리엔탈·파레스

529 BLOOR ST. W. TOR.
533-3545 6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세계의 하이재킹

類型과 그 處理

60년대이래 줄곧 유행병처럼 기승을부려온 항공기납치극의 양상은 최근들어 정치적망명에 의한 납치사건이 빈발하는 경향으로 변모하고있다.

항공기납치극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그중 하나는 개인형. 이는 금품을 탈취할 목적이나 광적인 소영웅주의에 빠진 범인에의해 이루어진다.또 정치적망명자나 카스트로지지자들이 망명 또는 도망의 수단으로 여객기를 납치하는 쿠바형도있다.

이번중공여객기의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보복으로 감행되는 中東型이다.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가 64년 아랍정상회담때 정식발족한후 67년의 6일전쟁이래 아랍권의 對이스라엘 테러행위가 극렬해지면서 이른바 아랍형납치극이 등장했다. 이형은 극한테러의 성격을 띠어왔다. 최근들어서는 정치적 망명동기에 의한 공산권에서 자유세계로 향한 망명납치극이 빈발하고 있다.

하이재킹은 7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특히 정치적보복성격이 강한 납치사건이 많았다. 70년3월30일 일본항공(JAL)의 요도호피납사건이 발생했다. 東京을 떠나 후꾸오까로가던 비행기안에서 일본赤軍파 무장괴한들은 기장등을 위협, 기수를 평양으로 돌리도록 했으나 金浦공항에 불시착했다. 이들은 인질승객을 풀어놓고 일본고관을 재인질로 삼아 평양으로 갔다. 범인 9명은 그후 평양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들은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73년 7월20일 암스테르담공항을 떠나 東京으로가던 JAL점보기(승객1백45명)가 親팔레스타인게릴라 4명에게 공중납치돼 시리아 키프로스 아랍토후국등으로 끌려다닌사건은 아랍비행기납치테러의전형이었다. 범인들은 리비아의 벵가지에서 인질을 풀어주었지만 기체는 폭파시켰다. 리비아군에 체포된 이들게릴라들은 재판을 받았다.

73년12월17일 로마공항에서는 5~6명의 팔레스타인 게릴라가 미국비행기에 수류탄을 던져 40명을 숨지게하고 13명을 루프트한자 항공기에 태워 납치, 아테네를 거쳐 쿠웨이트에와 투항했다.

1977년 9월18일 일본항공기 DC8機는 승객등 1백52명을 태우고 파리를 출발, 東京으로 가던중 적군파에의해 봄베이 상공에서 납치, 대카에 불시착했다. 그러나 같은해 10월1일 적군파의 요구조건인 일본내에 갇힌 적군파 6명의 석방과 6백만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승객을 인도했다. 그후 범인은 알제리에서 전원투항했고 기체는 돌아왔다.

이들 항공기납치사건은 대부분 기체, 승무원은 되돌아왔으나 범인은 인도되지 않았다.

1976년 9월6일 소련의 미그25機의 北海道 망명사건은 세상을깜짝놀라게 했다.

일본측은 베렌코 소련중위의 희망에따라 미국으로 망명을 허용했으나 기체는 방위청관리들이 철저히 조사한후 되돌려주었다.

최근들어서는 망명목적의 쿠바형 납치테러가 잦은 편이다. 그것도 기수를 공산권에서 자유진영쪽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11월22일 2정의권총과 2개의 수류탄으로무장한 2명의 폴란드항공사소속 공안원은 브로츠라프에서 바르샤바를 경유하여 그다니스크로가던 로트항공사소속 蘇製 안토노트24機를 납치, 서독에착륙, 승객4명과함께 정치적망명을 요청했다.

사건에 앞서 승객과승무원75명을 태운 불가리아여객기가 작년 10월14일 빈으로납치됐으며 폴란드인 납치범은 오스트리아에 정치적망명을 요청했다. 테러의 성격은 띠고있지않지만 작년10월 中共의 吳榮根조종사가 미그19기를몰고 황해를건너 탈출한거나 이번 중공여객기 불시착 사건도 정치적망명이 그동기를 이루고있다.

【[illegible]기자】

최근「政治亡命」늘어 거의 犯人送還 안해

海外토픽

16年刑期남은 罪囚 경찰관未亡人 約婚

아일랜드 게릴라에 의해 피살된 한 경찰관의 미망인과 살인죄로 복역중인한 죄수가 기묘한 인연으로편지를 주고받은끝에 16년이나 남은 형기를 기다려야함에도 불구,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

이같은 이색적인 로맨스는 플로렌스·콥(42)부인이 6년전 남편을 잃고 남편의 살해범인 에이레공화군(IRA) 소속 게릴라에게 용서하겠다는 편지를띄우면서 시작됐는데 이편지소식을 들은 케니·매클린톤(36)이라는 동료죄수가 이에 감동, 플로렌스 부인에게 편지를 띄우기시작, 정기적인 편지왕래끝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것이라고.

히틀러 코카인常用 耳鳴증세에 시달려

히틀러는 귀에서 윙윙소리가나는 증세를 없애고 머리를 맑게하기위해 거머리를 잡아다 피를 빨았으며 코카인을 상용했는가하면 강장제로 남성호르몬이 함유된 약들을 복용했었다고.

【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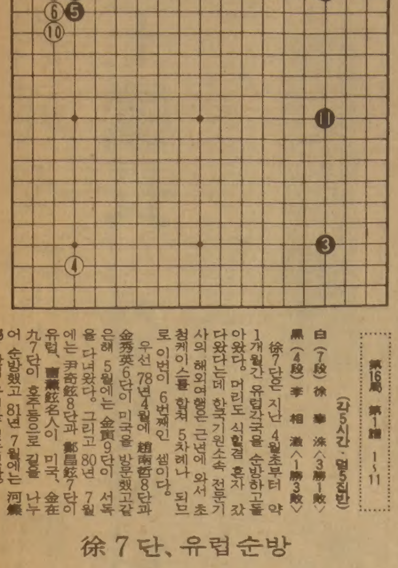
吸煙이 死亡주원인 人工심장 클라크씨

【워싱턴=聯】 인류최초의 영구인공심장이식수술을 받았던 故바니·클라크박사의 부인 유너여사는 5일『흡연이 남편사망의주요원인이었다』고 주장.

유너여사는 이날 담배갑에『흡연危害경고문』을 현행보다 상세히 기입하는 입법조치를 위해 열린 美상원의 한 위원회에 출석,『남편은 12년전 담배를 끊을때까지 25년동안 매일 한갑의 담배를 피웠으며 이것이 폐의기능을 감퇴시켜 다른 어떤것보다도 큰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증언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名人戰 第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16局 第1譜 1~11

(各5시간·덤5집반)

白 (7段) 徐 奉 洙〈3勝1敗〉

黑 (4段) 李 相 澈〈1勝3敗〉

徐7단、유럽순방

徐7단은 지난 4월초부터 약 1개월간 유럽각국을 순방하고돌아왔다. 머리도 식힐겸 혼자 갔다왔다는데 한국기원소속 전문기사의 해외여행은 근년에 와서 초청케이스를 합쳐 5차례나 되므로 이번이 6번째인 셈이다.

우선 78년4월에 趙南哲8단과 金秀英6단이 미국을 방문했고같은해 5월에는 金寅9단이 서독을 다녀왔다. 그리고 80년 7월에는 尹奇鉉8단과 鄭昌鉉7단이 유럽, 曺薰鉉名人이 미국, 金在九7단이 호주등으로 길을 나누어 순방했고 81년 7월에는 河燦錫7단이 유럽을 일순했다.

이상은 모두 아마추어 국가대표급을 대동하고 3명내지 5명의 그룹을 형성, 목적지외에도인근각국(예하여 서독의경우 유고,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프랑스등)에까지 범위를넓혀 민간외교면에서도 성과가 상당했다고한다.

일본기원에서는 이미 50년전부터 세계각국에 전문기사를 파견하여 바둑을 그들의것인양 보급해왔다. 이까닭에서지 유럽에서는 바둑을「GO」라부르며 백과사전에까지 실려있는 모양인데, 뒤늦게나마 그들에게 바둑의 참된 역사와 한국바둑의 진수를깨닫게 해준것은 뜻깊은일이다.욕심같아서는 그들이 지금부터라도 우리말로「바둑」이라 고쳐부르게 되었으면 하는데 어떨까. 한번 생각해본다.

【一凡】

張吉山 <1734>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94)

황회 전성달 계화 등등은 어차피 함께 떠날 사람들이라 건넌방에서 잘요량을 하였으나 월정사사담말 사람들은 어정어정하는 사이에 밤길을 갈수없는 시각이 되었다.

『아니…남의 신방두 생각들 해야지 여기 무슨 색주가 였었나. 어서들 파흥하고 돌아가요』

계화가 핀잔을 주었더니 임거사는 제가 지고온 탁주에 스스로 취하여 장고를 놓지않고 맞받았다.

『젠장 스님이 장가 갔으면 천복을 얻어 극락에 사는 셈인데, 오늘하루 미륵다고 월로(月老)가 맺어준 인연 좋을다시 푼다구 그럽디까? 너무 그러지들 마시오』

『저 말하는 송씨 좀 보게. 우리 종도사님 하구 용녀부인께선 월로의 인연이 아니라, 미륵존불의 점지라구. 그러니 극락이 아니라 서방 정토엘 가셔야지』

계화도 농반 진반으로넘기는데, 여환이 말하였다.

『이 뒷집에도 토방이 깨끗하니 우리가 그리루 나가리다. 염려말구 노시우』

『허허 아주 마리 저희들만 꿀맛 보기로 작정을 하였구먼』

방안에서 오고간는 농지거리들을 들으며 원향은부엌에서 공연히 그릇만 달그닥거리고 있었다. 때마침 길고긴 여름해가 기울어 하늘에는 저녁놀이 구름사이에 비꼈는데, 산새들은 이리 저리 지저귀며 저녁숲을 찾아드는 중이었다. 원향의 앞에는 이제새로운 삶이 시작되고있었다.

이튿날 세간을 대충정리하여 버릴것은 버리고 백련이가 달라는것은 내어주니 원향이 챙긴 것은 징과 바라 신칼과 요령, 그리고 남은 청리이었는데 모두 큰 만신 안부당의 물림이었다. 또한 원향의 집터에서 끌라내어 써오던 이빨성한 사기 그릇이며 소반은 젊은 물건이라 말림이가 봇짐을 꾸려 가져가기로 하였다.

오계손과 그의 동행이었던 계원 두사람과 황회 전성달 여환은 따로이 집아래 계곡의 물가에 내려가서 의논을 하였다. 오계손이 말하였다.

『여기서 양주가 수백리길이라 마실 다니듯 왕래하기가 어려우니, 큰일은 물론 세밀한 데까지 미리 약조가 되었다가다시 급주를 보내 서로 연탁을 해서 일을 맞추어 나가야 하겠읍니다』

『근래에 강원도 쪽에서는 별 전각이 없던가요?』

황회가 물었고 오계손이 답하였다.

『예, 우리 계에도 신서 수십권이 와서 나누어가졌읍니다. 뭐 우리네야 글을 모르니 어디 보겠읍니까. 그저 향일들이나 혼잡하는 이들께 넌지시 내밀어 뜻을 물어볼 뿐이지요』

『그래, 반응이 어떻던가요?』

『깜짝 놀라며 당장 갖다 버리라는 이도 있고, 풀이를 해주고는 베낄것이니 빌려 달라거나, 아예 자기를 달라는 이들도 있읍디다』

오계손의 계원이 대신말하였고, 계손은 고개를 저었다.

땅끝에서오다 <51>

金成一 作 宋龍 畵

어둠속의 證人 ⑦

준호는 자꾸만 솟아오르는 부끄러움을 감당할수없어책상앞에있는브리프케이스를열고 이세원의 바이블을 꺼냈다. 낡은 가죽투정, 그리고 너덜거리는 책장들.

(이세원, 이책속에서 네 비밀을 찾아내고야 말것이다)

그는 손가락 끝에 침을 발라가며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는 비행기안에서읽던 대목을찾아내고, 다시 그책의 활자속에 코를 박기시작하였다. 색연필과 볼펜들로 몇번이고 줄을친 책장들마다 이세원의 체취가 괴있었고, 이세원의 호흡이 숨쉬고 있는것 같았다.

이 세원의 책 속에서 준호가 수천년의 세월 사이를 왕래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팔목에 감긴 전자시계는 아기작거리며 오늘의 시간을 가고 있었다. 어느새 경찰서의 유리창은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당신, 교회엔 가 본적이 없다면서 성경책은 어디서 났소?』

그 얼굴이 완강하게 생긴 형사였다.

『아、』

준호는 겸연쩍은듯 웃으면서 책장을 덮었다.

『실종된 이세원의 것입니다. 그의 가방에 들어있던 것을 부인에게 돌려주기위해 가지고왔죠. 그런데…문영실의 알리바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읍니까?』

형사는 얼굴을 싸늘하게 굳히며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동경전화는 역시 집에서 건 것이었읍니까?』

『문영실의 아파트에서는 국제전화를 건적이 없는것으로 밝혀졌읍니다. 텔리비전방송도 그시간에는 모두끝나있었지요. KBS제1방송은성탄자정미사중계, 제2방송은 크리스머스특집쇼, MBC는특선명화 콘스탄틴 대제를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방영했는데 모두 1시이전에 종영되었고, 오직 AFKN만이 바나비·존스를 자정부터 방영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면…제가 들었던 음악소리는 AFKN 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텔리비전수상기의 채널은 KBS 제2방송에 맞추어져 있었으니까』

『아……』

준호는 그제야 안심했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문 영실이 집에서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 셈이군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 시간에 문 영실이 국제전화를 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사람은 임 준호씨 당신 한 사람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완벽하지는 않아요』

역시 어둠 속에 도사리고있는 증인…문 영실에게 전화를 걸으라고 명령한 그 사내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형사는 담배를 꺼내 물면서 피곤한 듯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수사결과는 문 영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읍니다』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액자및 성화
714 BLOOR ST. W. ☎535-1920

교회안내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 종교서적·성가집·액자및 성화
549 BLOOR ST. W. ☎532-7909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감리교회 (Methodist Church)				
웨슬레감리	여응순	주일오전 11:00 금요저녁 8:00	2385 Warden Ave. Scarboro. M1W 2L8	444-8343
토론토한인감리	박춘하	주일 오후1시 성경공부 수요일 7시30분 오후2시 장년예배 학생부 영어예배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M2N 2N1	498-7960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잠언 22:6				
●독립교회 (Independent Church)				
대한	조남유	주일오후 2:00	3819 Bloor St. W. Islington M9B 1K7	621-6340
메시아한인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토·수요예배 오후8시	1580 McCowan Rd. Scarboro. M1P 3J1	298-1876
벧엘	최상봉	주일오후 1:00 수요저녁 6:30	395 Old Yonge St. M2P 1R6	496-2967
성령	김관선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379 Kenneth Av. Willowdale M2N 4V9	275-4650
스카보로	김회섭	주일오후 1:30	115 Ionview Rd. Scarboro. M1K 3A1	752-3582
토론토교회	이태한	예배시간 주일오후 1:00	2 Nobert Rd. Agincourt M1T 1C1	494-5007 226-9794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순복음교회 (Full Gospel Church)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Rexdale M9V 1A7	745-3884 743-4813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Weston M9N 1K8	881-7162 247-9577
순복음몬트리얼	이은종	주일오후 2:00 수요오후 8:00	5275 Earnes Cliffe Ave. Montreal H3G 2H8	(514)933-0308 486-6600
●연합교회 (United Church)				
몬트리올한인연합교회	배한국	주일 오후 1:30	5964 Notredam de Grace Ave.	484-1338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대예배 오후 2시	2500 Mimosa Row. Mississ. L5B 1P7	276-5163 277-2394
중앙한인연합	김택규	주일오후 12:30 수요일저녁 7:30	353 Sherbourne St. Toronto M5A 2S3 (복음다이얼) 922-0605	922-3863
임마누엘		주일오후 2:00	63 Dunblaine Toronto M5M 2S2	488-4141
토론토한인연합	이상철	주일오후 성경공부 1:00 예배 2:00	300 Bloor St. W. Toronto M5S 1W3	925-6261
한인연합	반병섭	주일예배 오후 2:00	69 William St. Weston M9N 2G6	243-9543 743-8082(R)
해밀톤연합	김나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3:00	1570 Main W. Hamilton L8S 1E8	626-4329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가나안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e. W.) Weston M9P 3A8	742-7010
갈보리장로	안병한	주일오전7:30, 오후2시, 5:00 금요성경 8:00	3817 Lawrence Ave. E. Scarboro. M1G 1R2	755-7979
동부장로	홍순관	주일오전 11:30 영어 10:30	40 Yarmouth Rd. Toronto M6G 1W8	530-1142
딕시장로	차주성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Mississ. L5A 2X4	279-4356 279-6388
반석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7:00	2840 Weston Rd. Weston M9M 2S3	746-5010
빌라델비아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 Toronto M4A 2H5	281-5706
새한장로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새벽기도 7:00 수요저녁 7:30 성경공부	105 Wilson Ave. Toronto M5M 2Z9	482-4577
선교	김요석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Don Mills M3C 1N1	444-80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도	김용진	주일오후 1:30	87 Elmhurst Dr. Rexdale M9W 2J8	745-7370
성산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7:30	1239 Jane St. Downsview M3L 1E7	248-4130 233-2266
토론토소망	서인구 김옥회	주일오후 2:00 수요 밤 7:30 금요철야 밤 12:00	35 Kecala Rd. M1P 1K7 (Lawrence & Kennedy) Scar.	752-9727 752-9860
시민	조성관	주일오후 2:00, 4:30 금요기도 밤 10:00 새벽기도 5:30	662 Pape Ave. Toronto M4K 3S5	266-4918
영락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 10:30	126 O'Connor Dr. Toronto M4J 2S4 복음다이얄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	장세택	주일오전 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Toronto M6P 2E3	762-1495
은성장로	장은덕	주일오후 2:00	8 Amroth Ave. M4C 4H2 (at Danforth & Woodbine) Tor.	691-9691 266-8820(R)
제일장로	김용출	주일오전 11:30-대예배 금요 오후 8:00 TV예배 오전8:30-9:00 CH79(매월 4째 주일)	68 Collinson Blvd. Downsview, M3H 3C3 (생명의 전화) 755-9766	636-1724
충현	박경남	주일오후 1:00-1부 2:00-2부 수요집회 밤 8:00	240 Manor Rd. Toronto M4S 1S1	438-0695 446-1211(R)
토론토한인장로	박희민	주일오전 11:00 수요오후 7:30 TV예배 8:30~9:00 AM CH79	1183 Davenport Rd Toronto M6H 2G7	535-6864 532-2121
한인중앙장로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St. Toronto M5S 2P9	961-8361 622-2181 (전화설교)
런던제일장로		주일오전 11:30 주일오후 1:30 금요기도 오후 8:00	135 Briscoe St. E. London N6C 1X4	(519)439-6331
런던한인장로	신용규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N6J 3M7	686-0224 473-5257
매니토바한인장로	이영선	주일오후 1:30 금요성경공부 8:00 토요청년성경공부 7:00 주일학교오후 12:30	240 Home St. Winnipeg. Man. R3G 1X3	(204)783-5881 (204)667-7150
에드몬톤장로	서출선	주일오후 1:30, 5:0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8:30	11112-109 Ave. Edmonton Alberta. T5H 1E1	(403)423-5325 463-2075
키치너·워터루한인	정동석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388 Ottawa St. S. Kitchener N2M 3P4	(519)579-0954
●성결교회 (Holy Church)				
베다니성결	김요한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3:00	2799 Weston Rd. Weston M9M 2R8	248-9709 248-1653
●침례교회 (Baptist Church)				
에덴침례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Toronto M6M 4R1	242-4964 665-2866
한인침례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720 Ossington Av. Toronto M6G 3T6	531-7604 (R)533-1377
●펜티코스탈교회 (Pentecostal Assemblies)				
새예루살렘	김승환	주일오후 2:00 수요새벽 5:30 중고등영어 오후 1:00 금요저녁 7:30	5 Grenoble Dr. Don Mills M3C 1C3	429-1430 429-2685
연합한인펜티코스탈		주일오후 2:00 -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 대예배	300 Queen's Dr. Toronto M6L 1M5	223-1914
●천주교회				
토론토한인천주	최규식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Toronto M5A 2B1	863-0415
안식일교회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Willowdale M2R 1M8	630-4284
●기도원				
오순절기도원				
토론토기도원				
협신기도원	이광욱		75 Emmett Ave. #1005. Toronto M6M 5A7	245-1687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23) 『네 믿은대로 될찌어다』 마태복음 8:13)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집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링(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환영.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illegible]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신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6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위정남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바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프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쎄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츄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보광한약방 (종계 김남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하르빈한약상사
전 중국한의대교수. 전 중국의대졸업.
하르빈한의대졸업. 한의학과 침구연구 20년.
한약으로 암치료연구 20년. (중국어, 일어, 한국어 능통).
각종한약 중국에서 직수입 도산매전문. 20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한약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저 하옵니다.
643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춘봉.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 강 설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IJOFF
다이야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파트타임 직원급모 (1)Receptionist: 영어와 한국말로 전화를 받을수 있으며, 영문타자를 빨리 칠 수 있는 용모단정한 사람.
(2)식당종업원: 토요일저녁(6시-10시) 간이식당서 일할 분(연령불문)
◉문의나 신청은 West End YMCA(931 College St.) Mr.Kim이나 Jackie. 536-1166

급히 가게매니저 구함
월수입 $4,000이상 보장
전화 : 1-560-6400 해밀톤

가발 염색및 가발 만드실분 구함.
경험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하나 꼭 필요치는 않음.
풀타임 또는 파타임으로 다운타운 지역임.
Training을 받기 위해서는 꼭 영어를 말할 수 있어야하고 이해하여야만 함.
문의 : 977-1122 Randy

입주, 또는 출퇴근하면서 아기보아 주실분 구함.
전화 : B)839-8438, R)282-6223.

주방헬퍼구함.
경험자우대. 몬트리얼지역.
"희의 집" 전화 : 1-(514)-861-6128.

Store Helper 구함.
경험있는 여자분에 한함. little bit of coffee work
Downtown지역. 전화: 368-8834 (오전11시이후)

도너츠숍에서 일하실 주말헬퍼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2-0634.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주말에 지불함.
전화 : 534-5903 Mr. Peter

입주하셔서 17개월 된 남자아기와
약간의 가정일 돌보아 주실분.
전화 : 270-1981.

경험있는 캐쉬어 여학생 구함.
파트타임(오후5시~10시). 단 토·일요일은 풀타임.
전화 : 621-4121 Mrs. 정. 서쪽 지역.

재봉사구함.
여자옷종류 재봉할 수 있는 분.
전화 : 366-3227.

파트타임 Store 헬퍼구함
전화 : 488-1634

파트타임 헬퍼 구함.
Partime helper wanted at Country Style Donut Shop.
Located at Keel and Just South of Finch.
Common english communication needed.
Anyone who is interested please
Call 630-9413 ask for Mr. Yun

재봉사 구함.
숙녀복및 양복 수선 할 수 있고,
꼭 경험이 있어야함.
피스 워크
좋은 베니피트 보장
★희망자는 IRVIN POSLUNS을 면담.
DYLEX, 3RD. FLOOR
637 LAKESHORE BLVD. WEST.
전화 : 591-7054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533-2361

매 매

Private Sale. 버라이어디 가게
주매상 $8,500이상. Extra Income $2,500이상/M
(Lotto+Game). Cash Deal.
16 Hansen Road North, Brampton.
(오전10시부터 12시 사이에만 문의요망)
전화 : 457-7071

Dairy Case 싼값으로 매매
전화 : 487-9792

FRUIT MARKET 급매.
연수입 $2만보장. (켄싱톤 MARKET & SPADINA)
Asking $4만. 전화:977-6347, 591-9378 Mr. Lai.

Show Case 4ft & 6ft(기타 여러종류)
Magazine Rack 급매.
전화 : 757-8323, 759-6445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5,000.
렌트 : $700. 리스: 6년+10년 옵션
전화 : 1-388-4825(해밀톤)

Becker's 후렌차이스 Store 매매.
314 Painted Post Dr. Scarboro. Ont. 직접 내방 요망.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3,000. 시작한지 10주.
낮은 Rent. 리스좋음. Asking $27,000.
타사업관계로 매매코저함. 전화 : 466-9864(AM10시-11시)

1)새로 차린 자그마한 도낫 커피 아스크림숍
$1만9천 Rent 600
2)월세 $600 가게 800 SQFT. Queen Greenwood 이층 Apt.도 세놓음
3)Wellesley & Parliament dry cleaning Depot $24,000 연매상 $60,000 수선은 별도수입
4)Driving Restaurant 401. Missi Rd. 희랍인이 차린집 1년 56석 주류허가 14년리스 12만5천불
5)Driving Restaurant 401 Pickering 44석. 주류허가 통닭전문집 다른 업종변경도 가능함. $17만5천(외국인4년 경영하고 있음)
6)Scar Centenial Hospital 근처 3 Bed Town House 뒤가 남향바지에 그린벨트가 있음. 5만7천9백
7)West Hill Side Split 15만5천 주인이 은퇴함 8년이 됐고 다 꾸며신 지하실에 뒷뜰이 큼
8)Bloor & Dovercourt 2층 벽돌 새로개조한집 12만7천불
9)하이웨이 No.7 우드바인 1에이커 땅에 벽돌집 꽃과 나무와 잔디. 주인 은퇴함. $8만 down
Royal Trust Co. 전화 : B)752-3111 R)298-0398 곽석용

카사로마 미장원 매매
3개룸및 부엌 포함
전화 : 921-5947 Mr. Gus

좋은 위치에 계속 성업중인 중국식당 매매
Full License. 전화 : 654-6609
538 St.Clair Ave. W.

Town Houese 매매(좋은 가격) 매매.
Jane & Sheppard지역
전화 : 743-3377 Mr. Eastman

가게 달린 주택 매매.
좋은 위치. 좋은 전망.
전화 : 653-1958 Mr. Viss 영어로 문의바람.

버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주매상 $7,500. 리스 5년반 + 5년옵션.
꼭 사실분만 문의바람. 전화 : 746-0272.

Dry Cleaners(Depot)매매.
주매상$850. Rent$350. Asking$23,000.
전화 : 531-5664.

그로써리 Store 매매. 주매상 $7,000($10,000 가능)
아스킹 : $98,000 리스: 10년 렌트 : $500
토론토 북쪽 전화 : 1-852-7907

피자식당(L.L.B.O)과 옆에 붙어있는 서브마린식당 매매 원함.
리스 8년+10년 옵션. 40석.
두 식당을 한꺼번에 사실분 연락요망.
직접 내방요망.
1166 Morningside Ave. (Sheppard지역)
Mrs. Kim 전화 : 281-8218

Tuck-Shop Variety Store 급매
꼭 관심있는 분만 내방을 바람.
면담시간 : 9am~11am
영업시간 : 8:30~9까지 하고 있음.
장소 : Dundas + Parliament 근방
39 Belshaw Place Tor.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5,500. 로타리오 머쉰.
직접 내방 요망. 5년 리스 + 5년 옵션. 비데오 있음.
1801 Lawrence Ave. E. Scarboro.

PICK-UP 세탁소 매매. Asking: $6,000
Apt. Rent 포함 $400. 리스 8년
전화 : 534-5903 Mr. Peter

도나스 숍 매매. 주 $5,500
Bathurst & 580 Queen St. W.
전화 : 368-2100

새로운 각종 비데오게임 매매.
이익은 50%씩 나눔. 좋은 Terms.
전화 : 247-3713

블로아에 위치한 스토아 매매. 비데오게임 라이센스.
Post Office 로타리오 머쉰 연수입 7만2천이상
Asking Price : 9만5천+Stock 전화 : 588-1494

이전관계로 좋은 조건으로 급매.
3 Bed Room. 콘도미니움 타운하우스.
전화 : 493-0615 Mrs. 안(6시반이후)

버라이어티 & 그로서리가게 급매
주6일 영업. 주매상 4천불. Lotterio+Video기계있음.
Asking 3만불+스탁. 714 Scarlett Rd.

Donut Shop 매매 Asking: $159,000
$80,000 down or $140,000 cash
전화 : 447-6129 call after 9pm ask for Nick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6,500 + 로타리오 머쉰있음.
전화 : 977-0578. Mr. William(K.SEE REALTY INC)

Variety Store 매매. Hamilton
주매상: $6,000 아스킹: $61,000 리스: 5년($650)+5년($750)
현재 $580 (in Plaza) 1-528-3986 Mr. Lee

햄버거 레스트랑 매매.
성업중. 리스 좋음. Downtown(시내중심가)
전화 : 461-2404 MR. ANGELO

Oshawa Downtown Shopping Mall안에 있음. Shoe repair Shop. 4월 1일부터 Open했음. 매매.
관심있으신분은 291-8367로 전화연락바람(아침10시 부터 오후3시)

오픈한지 5개월 된 도너츠숍 급매.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3-1733.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아파트써부릿렌트. 온타리오싸이언스부근. 현재 월$605.
3 Bed Room(8월이후$650). 5월15일부터 입주가능.
전화 :424-1993. 낮 536-2155.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차차. 스윙 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렌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손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충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파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마끼지 않고 직접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피아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현영 (R)686-0207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88-244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함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illegible]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